

Praying with  
Ignatius of Loyola

성 이냐시오와  
함께하는  
기도

by

Jacqueline Syrup Bergan

and Marie Schwan

역

남가주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C.L.C)

성 이냐시오와  
함께하는  
기도

이 책은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남가주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C.L.C)에서  
사도적의 일환으로 우리말로 옮긴 것 입니다.

## 머 리 말

### “이냐시오와 함께 하는 기도”의 완역에 붙여

하느님께서 “영과 진리 안에서 깨어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요한 4, 23)고 알리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우물가를 찾아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의 때가 은총의 때이고,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는 듣는 사람 누구에게나 회심과 구원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부르심을 듣고 그에 응답하는 은총의 체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각기 형태와 방법은 다르지만 함께 공유하고 있는 특별한 삶의 표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선택 받은 백성으로서 교회 안의 많은 성인들의 모범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사랑으로 응답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은 변화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은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인들의 예에서 보며 격려를 받고 고무되는 것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삶 안에서 일어난 회심의 체험 역시 우리를 때려시킵니다. 세상의 명예를 탐닉하고 따랐던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는 데서 한 인간의 삶에 일어날 수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세상의 혼란된 흐름을 거슬러 그리스도를 닮은 가치관으로 전환할 때 커다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는 각성을 안겨 줍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남긴 영신수련은 그의 삶을 변화시킨 체험에서 비롯되었으면서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도록 용기를 주었는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미친 영향과 비중을 더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유산인 동시에 오늘 현재를 살아가도록 이끄는 지침서로 더욱 높이 평가해야 할 가치가 늘 새롭습니다.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관한 많은 해설서와 번역서가 있지만 여기 번역 소개하는 “이냐시오와 함께하는 기도”는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성인의 기도와 수련방법을 적용하기 쉽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엮은 기도와 묵상의 안내서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기도하는 사람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비우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며, 성삼위 일체가 되어 베푸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독자를 인도해 주는 길잡이는 기도입니다. 이 책이 영신수련의 과정을 이냐시오 성인과 함께 기도하며 쉽게 풀어갈 수 있도록 내용이 짜여 있다는 점에서 지식을 얻기 위한 읽을 거리와는 구별됩니다. 번역에 참여한 남 가주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CLC) 공동체 회원들이 실제로 이 책을 사용하여 기도하고, 또한 CLC 자체 피정을 하면서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냐시오 성인과 함께하는 기도와 성찰의 훈련을 실습했고, 그 자리에서 확인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CLC는 이냐시오 성인이 남겨준 삶의 여운을 이 시대에 새롭게 느끼도록 불리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남 가주에 사는 한인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남 가주 한인 CLC 공동체의 역사도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냐시오의 영성을 배우고 수련하면서 이민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영신적

혜택을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나누는 첫 걸음으로 시작된 일이 이 책의 번역입니다. 많은 교우들의 기도생활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남 가주 한인 CLC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번역하였고, 주님의 보다 큰 영광을 위한 작은 선물로 봉헌하게 하였습니다. 실천적인 봉사의 영성을 우리의 삶 안에 구체화하고, 숙성 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나아가는 사도직의 출발점으로 삼고 싶습니다.

각자의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번역하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황 테레사 자매님, 김 홍석 파스칼 형제님, 최 명수 바오로 형제님 그리고 번역과 원고 정리, 교정 및 편집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책이 완성되도록 헌신적으로 애쓰신 전 홍식 도미니코 형제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 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이 책을 이용하시는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02년 2월  
원 영배 아오스딩  
남 가주 한인 CLC 의장

머 리 말.....	3
서 문.....	6
입 문.....	11
이냐시오의 생애.....	11
이냐시오의 영성.....	19
목 상.....	22
목 상 1 - 비움의 은총.....	23
목 상 2 - 신뢰하는 마음.....	27
목 상 3 - 향 복.....	31
목 상 4 - 철저한 정직.....	35
목 상 5 - 하느님의 뜻에 순종.....	40
목 상 6 - 예수 그리스도와의 열정적인 만남.....	44
목 상 7 - 자비로운 우정.....	49
목 상 8 - 모든 것을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53
목 상 9 - 하느님 뜻의 식별.....	57
목 상 10 -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의 삶.....	62
목 상 11 - 사랑의 봉사.....	66
목 상 12 - 교회를 향한 사랑.....	70
목 상 13 -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74
목 상 14 - 마리아, 우리의 어머니.....	79
목 상 15 - 삼위 일체의 하느님.....	84
읽기는데 참고한 책들.....	88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들.....	89

## 서 문

### 여정을 위한 동료들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것과 같이 동료도 마찬가지로이다. 실제로 ‘동료(Companion)’라는 말은 ‘함께’를 뜻하는 ‘Com’과 ‘빵’을 뜻하는 ‘Panis’라는 두 라틴어 단어에서 나온 것이다. 동료들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 영혼과 몸을 길러준다. 또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빵의 나눔을 행할 수 있다.

아마도 성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최후의 만찬, 가나의 혼인 잔치, 빵과 물고기의 나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신 것 같은 동료들에 관한 이야기들일 것이다. 예수님과 그의 이런 사건들은 매번 그분의 자비와 사랑, 지혜, 고통 그리고 희망에 대하여 점점 더 많은 것을 드러내시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리브 동산에 가셨을 때, 그분은 사도들(Apostles)의 동료애를 간절히 바라셨다. 사도들은 그분을 버려 두었다. 그러나 하느님은 성령을 보내시어 사도들의 마음을 불 타오르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께 그리고 서로에게 충실한 동료가 되었다.

역사를 통해서, 다른 충실한 동료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뒤를 따랐다. 이 성인들과 신비가들은 회개에서 시작하여, 고통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여정을 걸었다. 이들이 그들을 앞서간 거룩한 사람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듯이, 당신도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그들을 동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냐시오의 풍부한 영성적 가르침들을 접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의 순례를 도울 수 있는 지혜로 이끌어준다. 마지막 묵상을 끝낼 때,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영혼의 동료에게 도움과 도전과 확인을 받았음을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

최근에 나타난 영적 갈망들은 그리스도인 삶의 쇄신의 징표들이다. 사람들은 영성적인 주제에 대한 피정과 연수회를 가득 메우고 있다. 영성 지도자들에 대한 수요는, 그 지도자들의 수효를 넘어서고 있다. 완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범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성인들과 신비가들의 생애와 저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이냐시오와 함께 하는 기도

**이냐시오와 함께 하는 기도**는 단순히 이냐시오의 영성에 관한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다. 당신에게 그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 문제들과 주제들에 대하여 이냐시오가 했던 방법대로 기도하도록 당신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각 묵상들은 그의 영성을 이해하도록 당신을 비추어 줄 것이며, 당신 자신의 체험에 대해 비추어 보고 이끌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이 이냐시오의 깊은 영성을 발견하고 그의 정신과 지혜를 당신과 하느님의 관계, 당신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의 관계 속으로 통합시키게 되는 것이다.

## 이냐시오와 함께 기도하기 위한 제안

입문을 읽음으로써 당신의 영적 순례를 위한 용감하고 매혹적인 동료인 이냐시오를 만나게 된다. 그 입문에는 이냐시오의 간략한 생애와 영성의 주된 주제들의 개요들이 있다. 이냐시오를 만난 후에, 당신은 이냐시오와 그리고 하느님을, 당신의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되어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교 영성의 전통의 일부인 몇 가지 제안들을 참고하길 바란다.

**거룩한 장소를 마련함.** 예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 주실 것이다.” (마태 6,6)라고 말씀하셨다. 홀로 기도할 때에 은밀하고 고요한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이 두 가지는 바쁜 사람에게는 사치일 수도 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당신 자신 안에 조용하고 안정된 자리를 마련하라. 아마도 일하러 가거나 오는 길에서, 차에서 차를 기다리는 사이에,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에 할 수 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께서 어느 곳이나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책의 목상들을 홀로 하거나 그룹으로 하거나 촛불, 목상 음악, 그리고 성서를 펼치고 혹은 십자고상으로 기도하는 분위기를 마련한다.

**기도의 능력에 당신 자신을 열어 놓음.** 모든 인간의 체험은 종교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 삶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현존으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의 기도 중에 하느님의 현존안에 머물도록 하라. 분심을 걱정하지 말 것이다. 만약 기도 중에 어떤 것이 당신을 계속 방해한다면, 하느님께 그것에 대해 말씀 드리는 데에 시간을 좀 보낸다. 융통성을 갖도록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성령은 불고 싶은 곳으로 부는 것이다.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열게 하고 당신의 시야를 넓게 한다.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들에 마음을 열도록 한다. 당신이 하느님의 성령에 당신 자신을 열어 놓으면 갖가지 다른 감정들, 즉 민감한 기억에서 나오는 슬픔, 칭찬의 기억에서 나오는 기쁨 등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영적인 요구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느님의 메시지이다. 또한, 기도는 행동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력을 강하게 한다.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은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에 따라 살도록 힘을 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많은 목상들은 당신의 기억과 상상, 그리고 당신 삶의 상황들을 기도의 주제로 취하도록 할 것이다. 위대한 신비가들과 성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느님을 더 잘 알기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수단들을 통하여 듣고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열린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의지로 기도에 접근하도록 한다.

**시작하기 전에 목상을 미리 살펴 봄.** 하느님의 현존안에 머물며 잠깐 동안 독서들, 특히 성찰 부분을 미리 읽어 본다. 각 주제마다 몇 개의 성찰 요점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개성과 개인적 필요에 따라 다른 기도 방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각각의 주제에는 한 번의 기도시간에 할 수 있는 것 보다 많은 양의 성찰 요점이 들어 있음을 주의한다. 그러므로 성찰 요점을 사용할 때에 한두 가지의 성찰만을 선택하도록 한다. 꼭 모든 성찰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목상하며 읽는다.** 각 목상은 이냐시오의 경우 이야기 하나와 그가 쓴 글 한 대목이 나올 것이다. 천천히 읽어간다. 특별히 어떤 구절이 당신에게 와 닿는다면 그곳에 머무른다. 그 느낌과 의미 그리고 내용을 음미하도록 한다.

**성찰을 활용한다.** 독서 뒤에는 독서를 설명하는 주석 형식의 짧은 성찰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독서를 목상하는 몇 가지 방법과 기도 주제가 있다. 당신은 여러 가지 목상 방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 ◆ **짧은 기도 또는 만트라 (Mantra, 주문)을 반복하는 것:** 당신의 기도를 집중시키는 방법 하나는 만트라 또는 기도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만트라는 한 단어일 수도 있고 독서나 성서의 짧은 구절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용기를 목상하기 위한 만트라는 “내가 너의 앞에 간다.” 또는 ‘신뢰’가 될 수 있다. 호흡에 맞춰 조화를 이루어 천천히 이를 반복하면,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나 속성에 집중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 **영적 독서(Lectio Divina) :** 이 목상 방법은 하느님의 말씀이나 영성 작가의 지혜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흔히 영적 독서에서는 한 부분을 여러 번 읽고 나서 한 두 문장에 집중하여, 당신에 대한 본문의 의미와 효과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적 독서는 결심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 ◆ **안내가 되어있는 목상 :** 이 목상 방법에서, 우리의 상상력은 하나만을 선택 해야 할 행동들과 기대되는 결과를 숙고하는데 도움을 준다. 상상력은 우리에게 하느님과 이웃, 우리자신,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체험하도록 도와준다.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비유와 이야기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그들의 상상력을 이용하셨다. 이 책에서 당신은 이 목상으로 초대될 것이다.

이 묵상을 하는 방법의 하나는, 당신이 성찰 속으로 들어 갈 때 그 장면이나 이야기의 개요를 파악하고 이를 회상할 수 있을 만큼 여러 번 그것을 읽는 것이다. 또는 기도 시간 전에 그 묵상을 녹음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사이사이에 성찰을 위하여 시간을 비워두고 천천히, 조용한 목소리로 읽는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독서와 성찰의 해설을 끝낸 후에 녹음한 것을 틀고 그 안내를 따를 수 있다.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혼란스럽게 한다면 친구에게 녹음해 달라고 부탁한다.

- ◆ **양심 검사(Examen of Consciousness)** : 성찰에서는 자주 과거와 현재의 당신이 체험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검사하도록 물어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찰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삶 안에서 당신이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는지를 검사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 ◆ **일기(Journal) 쓰기** : 쓰는 것은 발견의 과정이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대하여 솔직하게 쓰는 시간을 갖는다면, 당신은 당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하느님 앞에 서 있는지, 당신의 영혼 안에 존재하는 깊은 갈망이 있는지 등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느 성찰들에서는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기록하라고 요청할 것이다. 당신이 쓰는 것을 성찰 방법으로 사용해 본 일이 없다면, 해 보도록 한다. 일기 쓰기를 위하여 별도의 공책을 마련한다. 원한다면, 당신은 후에 양심 성찰을 위하여 당신의 공책을 다시 볼 수 있다.
- ◆ **행동(Action)** : 이따금씩, 묵상에서 좋아하는 찬미 노래를 부르거나, 산책을 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하기를 제안할 것이다. 행동은 의미 깊은 기도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그룹 기도를 위하여 묵상을 사용할 경우

만약 당신이 공동체 기도를 위하여 묵상을 사용할 경우, 다음의 제안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 ◆ 그룹에게 주제를 읽어 준다. 짧은 시작 기도로, 공동체를 하느님의 현존 속으로 초대한다. 한두 사람에게 독서 하나나 둘을 읽도록 한다. 독서 두 개를 모두 읽을 경우, 둘 사이에 간격을 두도록 한다.
- ◆ 성찰 해설은 그룹의 요구와 관심에 따라 독서로 사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 당신의 그룹을 위하여 한가지 성찰의 요점을 선택한다. 숙고를 위한 충분한 시간, 즉 향심기도(centering prayer)나 만트라를 읊고 영적 독서를 하거나 양심 성찰을 할 만한 시간을 준다. 그룹에 따라 그리고 쓸 수 있는 시간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성찰과 응답, 또는 청원을 그룹에서 함께 나누도록 초대할 수도 있다.

- ◆ 성서구절을 읽는 것은 묵상의 요약이 될 수 있다.
- ◆ 마침으로 정해진 기도나 시편이 있을 때에는 그룹 전체가 이를 합송 할 수 있다.  
또는, 참여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마침 기도를 바치도록 할 수 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영적 여정의 이 단계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돌보아 주는 동료인 이냐시오와 함께 기도할 준비가 되었다. 지난 500년 동안, 이냐시오는 하느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찾고자 하는 수많은 이들을 이끌어 주었다. 그가 참된 영혼의 동료임을 발견하게 되길 바란다.

CARL KOCH  
Editor

## 입 문

### 모든 것을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1556년 7월 31일 새벽녘 로올라의 이냐시오는 그의 마지막 말, “오 나의 주님”(“O my God!”)을 외쳤다. 순식간에 그의 죽음의 소식은 로마의 길거리를 통해 퍼져 나갔고, 사람들은 “성인이 돌아 가셨다.”고 외쳤다.

1622년에 이냐시오는 실제로 성인으로 공포되었다. 그레고리 15세의 - 일반인들도 줄곧 알고있었던 것인 - “이냐시오는 세상을 감싸기에 충분한 커다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선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Mary Purcell, *The First Jesuit: Saint Ignatius Loyola[1491-1556]*, p. iv). 이냐시오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 학교와 대학들, 가난한 사람에게 봉사하는 자선단체를 창설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부류의 남녀와 그들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포용하는 그의 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었다.

이냐시오가 살았던 500여년 전 이후 한결같이 그의 영성은 단단한 힘과 지혜가 남겨져 있다. 그의 영신수련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다 깊이 투신하려는 남녀들의 길잡이가 되고있다. 그의 생애는 하느님의 사랑과 다른 사람을 위한 용기있는 사랑의 부끄럽지 않는 좋은 예들이다. 이냐시오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커다란 영광을 위해서 그를 따르려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게 한다.

## 이냐시오의 생애

변혁과 탐험이란 단어들은 이냐시오가 태어난 1491년의 세계를 묘사한다. 그가 태어난지 1년도 되기전에 카스틸라의 군주 페르디난도 5세와 그의 아내 이사벨라 1세는 그들의 그라나다에서의 승리로 스페인을 무어인(Moorish)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이슬람의 정복으로 그들은 곧 가혹한 시련의 기간이 사라졌다. 무어인들은 세레, 이주 그리고 엄한 처벌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만족스럽지 못했고, 국왕 종교 재판소는 유대인, 무어인들 중에서 개종한 이들과 그리고 의심스런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교도를 색출 하였다. 종교의 정통성은 스페인 군주 정치의 충성의 시험이 되었고 사람들을 이 노선으로 따르게 하였다.

25년 후, 스페인의 통일과 이냐시오의 탄생, 또 다른 변혁인 종교 개혁(Protestant Reformation)이 유럽을 강타 하였다. 1517년,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커다란 격문을 위텐버그 성당(Wittenberg Cathedral) 문에 붙였다. 격문의 95개의 조항은 변혁의 불을 붙이게 되고 수년간 연기를 피우게 되었다. 이냐시오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며 역시 파리 대학을 졸업한 존 칼빈(John Calvin)은 극단적인 새로운 개혁을 하게된다. 그리고

영국에서 헨리 8세는 자기 나라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시켰다.

이 변혁으로 교회의 일치는 산산히 부서졌고 나라들은 갈라지게 되며, 새로운 땅들은 유럽인들의 힘에 의해 요구되고, 탐험되고, 개척되었다. 포르투갈사람들은 1486년에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항해 하였고 그 다음에, 1492년에 콜럼버스는 신세계의 해변가를 걸었다. 이들 탐험은 유럽의 각국 사이에 그들의 국가적 재화와 세력 확장의 격렬한 경쟁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영국의 배들은 부와 명예를 고향으로 가져올 희망으로 항해하였다. 카톨릭 국가에 의해 요구된 새로운 땅들은 역시 카톨릭신앙이 요구되었다.

개혁과 신세계의 하느님의 왕국을 선포를 입증하는데 이냐시오와 그의 예수회 동료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 이냐시오의 어린시절

이니고 로페스 데 오냐스 이 로올라(Inigo Lopez de Onaz y Loyola)는 스페인의 구이푸스코아 (Guipuzcoa)의 바스크(Basque)지방에 있는 아스페이티아(Azpeitia)의 작은 동네 가까이에 위치한 로올라의 성에서 태어났다. 로올라 가족은 국왕에 충성으로 봉사했고 충분한 보상도 받았다. 이니고의 아버지 벨트란은 군대를 이끌어 무어족에 대항 했었다. 그의 형인 후안 페레스는 스페인의 속국인 나플레스에서 죽었다. 다른 형인 헤르난도는 신세계에서 국가에 봉사하다 죽었다.

이니고(파리에서 공부를 시작한 때부터 자신을 이냐시오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7남 4녀의 막내였다. 그의 어머니, 도나 마리나(Dona Marina)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죽었다. 그는 가까운 농가출신 여인인 마리아 가린(Maria Garin)에게 맡겨졌다. 7살에 그는 집으로 돌아와 그의 형이며 집안의 상속자인 마틴 가르시아의 지도하에 있게된다. 마르틴의 아내, 믿음이 깊고 교양 있고 전에 이사벨라 여왕의 시녀였던 마다레나 데 아로아스(Madalena de Aroz)는 방황하는 이니고의 어머니가 된다. 아마도 몇몇 사람만이 이 막내 아들에게 기대를 했을 것이다.

## 젊은 시절

분명히, 이니고의 아버지는 아들을 사제가 되게 할 작정이었다. 어렸을 때, 이니고는 성직에 대한 자신의 봉헌의 상징인 머리의 윗 부분을 짧게 깎는 체발을 하였다. 가장 어린 아들을 교회에 바치는 것은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그러나 이니고의 사춘기는 어울리지 못하는 그의 성격과 성직의 생활은 걸모양만 이었다. 실제로, 이니고는 그의 붉은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고 화려한 복장에 흔들리는 깃털이 달린 빨간 모자를 쓰고다녔다. 오직 그에게 소송이 있을 때만 넌지시 체발했다는 것을 말했다. 체발하고 있을 동안, 이니고는 엄격한 시민 법정대신 종교 법정에서 그를 심리하도록 요구하였다.

그의 소년시절, 이니고는 집을 떠나 로올라 집안의 인척이며 친구인 왕실 재무상인 후안 발라스케스 쿠엘라(Juan Velazquez de Cuellar)의 집의 시종으로 일하려 알레발로(Arevalo)로 갔다. 이 집에서 그는 궁정 조신(朝臣)과 군인의 경력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새 주인의 옆에 타고 들어간 화려한 궁정은 이니고 마음에 숨겨졌던 여자에 대한 모든 관심이 그를 휘저었다. 그는 젊고, 독신 남성의 조신(朝臣)의 생활을 해나갔다. 그는 도박을 하고, 언쟁을 벌이며, 그리고 결투를 하였다. 그는 여자들과 시시덕 거리고 농락했으며 그리고 찰스5세 황제의 막내 여동생인 인판타 카타리나(Infanta Catarina)의 특별한 구혼자가 되었다.

이사벨라 여왕이 죽었을 때, 페르디난도는 15살의 프랑스 여성인 저마나(Germana)와 결혼하였다. 페르디난도가 죽은 후 발라스케스는 젊은 미망인 여왕의 욕심많은 요구들에 저항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즉결로 발라스케스를 불명예와 면직을 시켰다. 사람들은 그를 떠났다. 그의 부채는 늘어나고, 아들 하나가 죽었다. 1517년에, 너무 많은 불행에 굴복하여, 발라스케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주인을 잃고 그리고 환멸을 느낀 이니고는 떠나게 된다.

이니고는 북쪽으로 향해, 봉사 할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나바레(Navarre)총독의 군대에 입대하고, 바로 나바레의 수도인 팜플로나(Pamplona) 방어에 몇 백명의 병사와 함께 12,000명의 프랑스군 포위 공격에 대항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니고는 싸우지 않고는 항복할 수 없다고 사령관을 설득하였다. 이니고의 용기에 힘을 얻은 병사들은 방어전에 동참하였다. 전투 중이던 1521년 5월 20일, 포탄이 이니고의 오른쪽 다리를 부셨고 왼쪽은 심하게 부상을 입었다. 팜플로나가 함락된 후, 프랑스군은 이니고의 다리를 치료하고, 로올라의 그의 집으로 후송시켰다. 산맥을 통과하는 2주일의 여행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이니고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오른쪽 다리의 뼈가 좋지않게 맞추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다리가 낫더라도 그 다리는 짧아지고 뼈는 튀어나오게 될 것이었다. 이니고는 뼈를 다시 부러뜨리고 곧게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수 주일간 여러 차례 죽음 가까이에서 헤맸다. 그러나 이니고가 특별히 신심을 받쳤던 성 베드로 축일에 그는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 회심

회복되는 동안 그는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니고는 기사나 연애 소설을 읽으려 청하였다. 성안에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고, 대신에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인들에 관한 것이 주어졌다. 점차로 이니고는 내적 변화를 체험하였다. 그의 외적인 부상은 그의 내적 치유의 원인 되었다. 때때로 이니고는 군인으로서의 영광스러운 행위들에 관하여 공상에 잠겼고, 그는 잠시동안만 행복을 느꼈다. 공상이 그를 떠났을 때, 그는 실망스럽고 불유쾌함을 느꼈다. 다른 편에서는, 그가 성인들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행동을 특히 도미니코와 아씨시의 프란치스코를 깊이 생각할 때 그는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충만해짐을 체험하였다. 이니고는 오직 하느님의 뜻만이 그를 진정한 평화로 이끈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군인 생활에서의 내세움과 여자를 쫓는 열정은 하느님의 커다란 영광을 위한 봉사로 방향을 돌려졌다.

이니고의 즉각적인 관심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죄에 대한 후회와 깨끗해지려는데 있었다. 그는 첫번째로 잘 알려진 몬세라트(Montserrat)의 수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철저한 고백과 참회의 고행을하기로 결정하였다. 몬세라트 때부터, 그는 예루살렘의 순례를하기로 하고, 그는 그곳에 머무르면서 다른 순례자들이나 그리스도를 믿지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희망하였다.

이니고가 30살이되던 그 해는 1521년이었다. 베드로 성당(Peter's Basilica)은 건축중이었고, 교황은 마틴 루터를 파문시켰다. 존 칼빈은 11살이었고, 아빌라의 테레사는 6살이었다. 교회는 개혁가인 교황 아드리아노 6세를 선출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신세계의 세력 키우기와 소유를 위해 다투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니고는 그의 회개 여정을 착수한다.

### 몬세라트와 만레사(Manresa)에서의 정화와 조명

몬세라트의 어느날 이니고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 버리고, 거지 차림을 하고 총 고백을 하였다. 그는 1522년 3월 25일 성모님 축일 전날 밤을 밤샘 기도로 보냈다. 몬세라트의 검은 성모님(Black Madonna)앞에 그의 단검과 장도를 봉헌하고, 그때 남은 생애동안 봉사드릴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께로 자신을 완전히 내 맡겼다.

무기도 없이 취약하게 된 이니고는 몬세라트으로부터 만레사의 작은 마을로 길을 떠났고, 만레사의 도미니코 수도원에서 여러 달을 보냈다. 그는 기도와 단식을 하였고 넓은 바위에서 자기도 하였다. 맨발의 걸인이 된 이니고는 조소하는 아이들의 조롱도 경험하였다.

죄를 보속받기 위한 그의 열정은 그가 극단적인 참회와 고행을 하게 하였다. 한 차례 참회를 한 이니고는 지역의 병원을 찾고 환자들을 보살폈는데, 심하게 몹쓸 병에 걸린 이들을 특별히 돌보았다.

이니고가 만레사 주위의 동굴에서 오랜 밤샘 기도를 드리는 동안, 몬세라트에서 하느님께 자신을 의탁한 후로부터 자신을 감싸주었던, 따스하고 평화롭던 불길이 그의 의식을 괴롭게 하는 불안, 망설임등으로 바뀌어졌다. 무수한 죄 의식에 사로잡힌 이니고는 하느님이 자신을 용서하실 지에 대해 크게 낙담하였다. 그래서 그는 고통스러웠고, 하느님께 또 한번 하느님께 간청하였다. “주님, 보여 주십시오, 제가 그것(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해방)을 찾을 수 있다면 강아지를 따라다녀야 한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도움만 된다면 따라 다니겠습니다.”(John C. Olin, ed., and Joseph F. O’Callaghan, trans., *The Autobiography of Saint Ignatius Loyola*, p. 35) 오직 겸손히 자신을 이끄는 분께 순종할 때만, 그의 시련은 덜어졌기에, 이니고는 오랫동안 해왔던 자기 중심적인 단식을 그만 두었다. 점차 이니고는 하느님 은총의 위안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니고가 만레사에 있는 동안, 하느님께서서는 깊고 위안이 되는 영적 체험들을 하게 해주시면서 이니고를 축복해주셨다. 그는 자서전에서 삼위일체(Trinity), 창조,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비함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심안(心眼)들에 대해서 적었다. 까르도나 강둑위에서

그는 깨달음이 열리는 체험을 했는데, 그것은 심오하였으며 그의 나머지 생애동안 밑거름 역할을 하였다. 이니고는 자신을 삼인칭으로 표현하였다.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 만사가 그에게는 새로워 보일 만큼 강렬한 조명(照明)이 비쳐 왔던 것이다.”(Olin and O’Callaghan, *Autobiography*, p.39)

마침내 이니고는 오랜 숙원이었던 예루살렘으로의 순례를 위해 만레사를 떠났다. 그는 돈도 직함도, 가진 것도 없었기에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에 의존하며 자선을 청하거나, 혹은 음식을 구걸하였다. 여행하는 동안 이니고는 계속해서 내적 여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죄의 어두움과 권력의 욕심, 쾌락, 소유욕과의 싸웠던 일들을 적었다. 그리스도께로의 자신의 봉헌과 육화(Incarnation), 그리스도의 공생활(Christ’s public life), 수난(Passion), 그리고 부활(Resurrection)에 대한 관상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묵상적 경험은 그의 영신수련의 바탕이 되었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회심시키고,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이끄는 기도 생활과 묵상의 틀을 세웠다. 영신수련은 창조적이고 이니고의 영성적 특성의 유산들이다. 이 명확한 진술들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이 이니고의 정신과 마음을 형성한 은총임을 분명히 했다.

## 성지로의 순례와 귀향

성지로 가기 위해선 교황의 허락을 필요로 했기에, 이니고는 천천히 로마로 향했고, 거기서 순례의 허락을 받아냈다. 마침내 이니고는 여행에 필요한 돈을 구걸하고 예루살렘행 ‘베네치안’ 호에 승선했다. 항해를 한지 근 6주만에 이니고는 성지에 발을 내 디었다. 흥분에 쌓인 이니고는 모든 성지들을 찾았다. 그러나 3주만에 성지 책임자들은 그에게 떠날 것을 명하였다. 교회의 지도층은 이니고가 이전의 일부 열성 수도자들처럼 살해 당하거나, 납치, 억류되는 것을 걱정하였다. 이니고는 스페인의 집으로 향했다. 좀 더 머무르지 못하고 또한 그리스도께 영혼을 드리지 못 했던 것이 실망스러웠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에 단단히 심어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언제고 돌아가길 원하는 성지를 점령하고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긴 여행 동안, 이니고는 이탈리아에서 전투중인 프랑스, 스페인 군에 한번씩 포로로 잡혔다. 결국 이니고는 바르셀로나에 도착했다. 이 무렵, 이니고는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하려면 더욱 많이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유년기 교육이라야 읽고, 쓰기의 초보 수준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이니고는 라틴어 수업을 들었다. 서른 셋 나이에, 12살 혹은 더 어린 소년들과 함께 공부를 했다. 2년 후, 그는 철학공부를 하고 싶어 했던 알카라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라틴어 실력을 갖게 되었다.

## 알카라(Alcala)와 살라망카(Salamanca)

알카라에서 이니고는 당시 병원으로 썼던 초라한 집에서 살았다. 그의 수입은 구걸과 영신수련 지도로부터 나왔지만 이니고의 삶은 어려웠다. 공부로부터 멀어진 몇 년 동안,

배움은 느려졌다. 게다가 그전의 극단적 초기 고행생활로 인해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죽을 때까지 이니고를 괴롭혔던 고열과 소화불량도 겪었다. 아마 이니고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은 그의 형식을 따지지 않는 신앙의 설교와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가 정통적으로 가르치도록 주기적으로 요구한 일이었다. 어떤 때는 지역의 교회 관리들이 이니고를 42일간 감옥으로 보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이니고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설교와 가르침을 금지 시켰다.

이니고는 복음 전파에 대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확신했기에, 그에게 합류했던 동료들과 함께 살라망카로 갔고, 그들은 거기가 대우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 도착 후 12일이 지났을 때, 이번엔 이니고를 이단으로 의심하는 지역의 도미니코 공동체가 그를 또 감옥에 보냈다. 그들은 이니고의 모든 혐의는 벗겨주었지만 자유로이 설교하는 것은 금지시켰다.

이니고는 공부를 끝마쳐야 했고, 새로운 출발을 필요로 했기에 1528년 초 파리로 떠났다.

## 파리에서 수학

이니고는 몽테규 대학(Montaigu College)에서 철학공부를 시작했지만, 이내 돈이 떨어졌다. 한 친구의 조언을 따라, 그는 세 번의 구걸여행의 첫 번째로 플란더스(Flanders)로 구걸여행을 갔다. 이 여행을 통해 파리로 다시 돌아와 아무 지장없이 공부할 수 있게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었다. 1535년 이니고는-이제 라틴어식인 이냐시오로 되고- 철학과 신학의 두 과정을 완전히 마친 그는 학위를 받는다.

이냐시오는 공부를 하면서, 영신수련 지도를 계속하였다. 그의 카리스마에 이끌린 동료 학생들은 영신수련을 하게되는 동기를 갖게되고 그에게 영감을 준 이상들을 받아들였다. 첫 번째 젊은이들 중 이냐시오가 준 도전을 받아들인 이들은 피에르 파브르(Peter Faber)와 프란시스코 하비에르(Francis Xavier)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많은 이들이 이냐시오와 함께 하였고 이 모임은 자신들을 예수님께 두면서 커져 갔다.

1534년 8월 15일, 이냐시오와 여섯 동료들은 그들이 하는 일들을 구체화하고자 원했기에 정결과 청빈의 서원을 하였고, 예루살렘으로의 순례를 맹세하였다

모임은 예루살렘에서 봉사활동이 불가능하다면 교황께서는 `더욱 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을 아실 것이므로 교황에 순명할 것을 미리 결정하였다.

이 무렵, 이냐시오의 건강은 아주 좋지 않았다. 의사들과 친구들은 그가 건강을 회복하도록 스페인으로 돌아가길 권유하였다. 한편, 동료들은 신학공부를 1537년까지 마치고 성지로 순례를 착수하고자 베니스에 모였다. 이냐시오는 피에르 파브르를 모임의 책임자로 삼고 고향을 향해 남으로 갔다. 고향에 도착 후, 계속되는 설교, 교리 문답과 영신수련 지도를 하면서도 건강을 회복하였다.

## 베니스와 로마로의 여행

1535년 말쯤, 이냐시오는 스페인을 떠나 베니스로 여행을 하였다. 그는 신학공부에 깊이 빠져들었고 영신수련을 지도하며 파리에서 동료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1537년 1월에 아홉 동료들이 도착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정치적 변화를 기다리면서, 동료들은 가난한 이들과 굶주린 이들을 보살피고, 병자들을 돌보면서 말씀을 설교하였다. 1537년 6월 24일 이냐시오는 사제로 서품되었으나, 첫 미사를 성지에서 갖고자 뒤로 미루었다. 베니스와 터키인간의 적대행위로 성지로의 여행이 금지되었기에, 동료들은 로마로 갈 것을 결정하였다. 이 무렵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모임을 ‘예수님의 친구들’(Company of Jesus)로 규정짓기 시작하였다. 로마가는 여행동안 이냐시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한 그의 약속을 다하지 못 했음을 아쉬워하면서 하느님께 그의 마음과 영혼을 편히 내 맡겼다. 그때,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나는 로마에서 너희들의 편이 되어 주리라”(Karl Rahner, *Ignatius of Loyola*, p.58) 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냐시오와 동료들은 자신있게 앞으로 나아갔다.

## 예수회 창설

이냐시오와 동료들이 로마에 있을 때, 교황 바오로 3세는 그들에게 시의 성직을 맡을 것을 권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영신 수련을 지도했다. 그들은 신앙을 가르쳤고, 설교했고, 로마의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서 봉사하였다. 1538~1539년 혹한의 겨울동안 기근이 도시에 퍼져갔다. 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굶어죽고 얼어죽었다. 동료들은 거주할 곳과 필요한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랜 시간동안 병자와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봉사하였다. 그 겨울, 그들이 돌본 이들은 수천명이 넘었다. 그제서야 이냐시오는 로마에서 봉사하길 원하는 하느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래서 수 많은 불행을 접한 가운데서, 크리스마스날 메리 메이저(Mary Major) 성당에서 첫 미사를 올리게 되었다.

봄이 되자, 동료들은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 숙의하였다. 그들은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가? 그들은 수도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들의 사명들과 조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많은 토의가 진전되면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사실이 풍부하게 분명했고, 부분적으로는 그때까지 봉사를 통해 얻은 명백한 성과 때문이었다. 1539년 4월 15일, 그들은 만장일치로 함께 남아 있기를 결정했으며, 공동으로 삶을 영위하며,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순명을 하도록 결정하였다. 즉시 교황 바오로 3세는 ‘예수회’(Society of Jesus)라는 새로운 수도회의 설립을 구두로 승인하였다. 1540년 교회는 예수회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이냐시오는 스스로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종신 총장으로 추대되었다.

## 더욱 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타마리아 델라 스트라타(Santa Maria della Strata)의 작은 집무실로부터 이냐시오는 점차 커져가는 수도회의 활동 영역들을 관리하고 조정하였다. 교황의 요청에 순명하여 이냐시오는 예수 회원중 가장 유명한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를 인디아와 극동지역으로 파견했다. 이냐시오는 유럽 전 지역에 예수 회원들을 파견했고, 거기서 그들은 교회의 개혁과 쇄신에 앞장 서 나갔다.

디에고 라이네스(Diego Laynez)는 이탈리아에서 설교하고 가르쳤으며, 트렌트 공의회에서 훌륭한 활동을 하였다. 피에르 파브르는 포르투갈에서 독일로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프란시스 보르지아(Francis Borgia)는 스페인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썼다. 이냐시오의 카리스마와 열정은 “세상에 불을 지르려”(루가12:49)를 알게된 세상을 통해 퍼져 나갔다.

예수 회원들은 어디를 가든지 학교를 열었다. 시대의 필요에 부응하여 교육은 가장 중요한 사도직이 되었다. 교구와 교구로 예수회의 선교사들은 평신도들에게 영신 수련을 통해 신앙의 내적 쇄신을 불어 넣었다. 동시에 예수 회원들은 병자를 간호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재소자들을 찾아갔다. 이냐시오와 동료들은 모든 면에서 ‘**더욱 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첫째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태도들을 포용하였다.

동료들이 세상을 돌며 봉사하는 동안 이냐시오는 로마에서 일했다. 그는 많은 시간을 예수 회원들에게 서한을 쓰는데 보냈고, 그들에게 격려와 지침을 보냈다. 예수회 총장으로써 현재의 임무에 외에도, 이냐시오는 영신 수련을 지도하고, 설교를 하거나 교리문답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였으며, 로마의 많은 예전의 창녀들의 재활을 위한 주거지를 마련해주었다. 이냐시오는 고아원을 설립했고, 쉽게 착취당하는 버려진 소녀들을 위한 집을 지었다. 이냐시오는 다른 중요한 일들도 맡았는데, 예수회 회헌을 초안하고 교정하며 다듬었다. 매일 미사때, 그는 작성하고 있는 회헌의 특별한 점은 하느님께 맡기었다. 그럴때면 그는 묵상을 하였다. 회헌은 영신 수련의 정신과 힘을 사랑의 법칙을 표현하였다. 회헌이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삶의 방식을 하느님의 길로 고정하였다.

## 로마에서 죽음

그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이냐시오는 간장 질환으로 고통을 받았다. 결국 1556년 7월 30일 저녁, 이냐시오는 그의 비서를 교황에게 보내 자신의 죽음에 강복을 받기를 요청하였다. 그날 한 밤중, 열방의 한 형제는 이냐시오의 기도를 들었다. “오 하느님!”(Rahner, *Ignatius*, p.62) 이른 아침, 이냐시오는 그의 삶을 하느님께 평화로이 맡겼다. 그가 죽었을 때, 약 천 여명의 동료들이 이냐시오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럽의 46개 대학에서 가르쳤고, 전 세계 110여 교회 단체에서 봉사하였다.

## 이냐시오의 영성

이냐시오의 영적 유산은 예수회 동료들의 삶을 통해 퍼져 나갔지만, 이냐시오는 4개의 중요한 문헌과 그의 영성을 각인하고 색칠한 7천여 서신을 남겼다. 그의 생애 마지막 무렵에 받아 쓰여졌던 그의 **자서전**(Autobiography)은 회심의 이야기와 1538년까지의 그의 삶을 말한다. 그의 **영적일지**(Spiritual Journal)는 펼쳐놓은 내적 여정의 작은 부분들을 서술하고 있다. 영신수련과 회현을 통해서 그는 체계적으로 영적 생활을 위한 안내서를 만들었다. 이러한 모든 문헌들을 통해 그의 영성의 주된 줄거리가 설명될 수 있다.

### 체험 안에서 하느님과의 만남

모든 폭풍 속에서의 바위처럼 이냐시오가 지녔던 굳건한 믿음은 하느님을 우리의 체험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느님은 모든 남녀에게 직접 다가오시며,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연다면 하느님이 현존하심을 인식할 것이라는 것이다. 영신수련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체험하도록 돕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날 때, 그들은 영원히 변한다. 그런 만남은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 하느님의 더욱 큰 영광을 위해

이냐시오에게 삶은 관대하고 열성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였다. 하느님께 봉헌하고 하느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그가 삶에 대해 강한 흥미를 가지는 동기가 되었다.

이냐시오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동경하였다. 어떠한 권력과 소유도 자신의 갈증과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음을 체험하였다. 그는 오직 모든 사랑의 원천인 하느님의 완전하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갈망해 왔다. 이냐시오가 하느님의 관대한 사랑을 느꼈을 때, 그는 더욱 위대한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였다.

영신수련은 하느님의 뜻과 더욱 거룩한 하느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피정자들에게 성령을 듣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의한 자신의 삶과 회심의 과정을 통하여 이냐시오는 500년 전과 똑 같이 오늘 날에도 활용되는 식별 방법을 알게 되었다.

### 봉사의 신비

이냐시오의 영성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냐시오는 하느님 말씀을 교실과 병원, 고아원, 그리고 관청등으로 가져갔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마다, 이냐시오의 마음과 손은 그리스도의 자비로움을 따라갔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

하는 동안은 자기 희생도 그리 위대하지 않고, 고통도 그리 깊지 않으며, 가난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봉사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동안에도, 이냐시오는 교회의 개혁에 도움을 주려고 힘썼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느님의 왕국에 봉헌하도록 희망하면서 설교하고, 가르치며, 영신수련을 지도하였다.

## 회심으로의 부르심

이냐시오는 예수님께서 회심의 부르심에 대답하려는 사람을 돕기 위해 영신수련과 매일의 의식성찰을 작성하였다.

영신수련은 피정자들이 그들 자신이 죄 의식과 대면하는 것을 시작으로 탄생에 대한 관상, 공생활, 예수의 수난과 부활등의 주제를 가지고 한달동안의 과정을 이끌어준다; 그리고 각 개인에 대한 하느님의 개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묵상과 함께 끝 마친다. 수련하는 동안 피정자들은 여러 주제들, 세 가지의 겸손, 기도의 방법,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법에 대해 지도등을 받게 된다.

## 교회로의 헌신

이냐시오를 위해, 교회는 예수께서 하느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물리적인 사랑을 표현하였다. 교회는 하느님께로 가는 길과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신비스런 사랑의 상징으로서 섬겨졌다. 이냐시오의 교회에 대한 헌신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섬기려는 그의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이냐시오는 그의 시대에 교회를 둘러싼 많은 인간적 문제들을 보았음에도, 교회를 섬기는 마음은 전혀 움추러들지 않았다. 교회의 순간적인 잘못됨도 있었지만, 교회는 하느님 말씀의 전달자로서, 하느님 백성의 시종으로서, 신앙인들의 공동체로 그리고 하느님 사랑의 상징으로서 남았다.

## 일상생활 속에서의 기도

이냐시오의 영성은 사람들을 매일 기도로 이끌어준다. 그의 저서에서 몇 가지 혼자하는 기도방법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이고 영성 여정의 어디쯤에 있는 지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기도방법을 계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이냐시오는 지성, 기억력과 의지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감성과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기도에 접근하였다.

## 평범한 훈련

그의 시대에 관행과는 다르게, 이냐시오는 단식과 참회를 적당히 할 것을 장려하였다. 그는 사랑이 동반되는 자기희생과 타인을 시험할 정도로 충분한 수련을 가지고, 일상적인 갈등을 겪는 일들과 가족, 공동체, 성직과 일터에서의 어려움을 알았다. 이냐시오는 육체

적 건강의 적절한 치료를 상담해주었다. 건강한 정신과 육체가 하느님의 커다란 영광을 찾으며 성직에 봉사할 이에게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음식과 안식의 선물을 감사히 여겼다.

### 오늘날의 이냐시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완전함에 대한 갈망은 이냐시오의 마음 속에서 타 올랐던 것 처럼 오늘 날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타오르고 있다. 이냐시오의 시대는 그 당시의 악마가 있었고, 우리 시대 또한 우리 시대의 악마가 있다. 그것들은 정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이냐시오 자신의 회심으로부터 나온 하느님으로 길은, 지금도 우리들을 우리시대의 악마로부터 해방되도록 이끌어갈 수 있다: 탐닉, 탐욕, 마음의 공허함, 절망, 혼란, 폭력 그리고 무미건조함 등에서 해방. 여러 세기동안 이냐시오의 영성적 마음을 형성했던 영신 수련은 영적형성의 강력한 도구들이 되어왔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의 자비를 향하는 우리들 여정에서, 이냐시오는 현명하고 식별있는 훌륭한 동료가 될 수 있다. 그 위에서 우리는 그와 더불어 말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All for the greater glory of God”

# 목 상

# Meditation

## 목 상 1 - 비움의 은총

### (The Grace of Emptiness)

**주제:** 우리의 영적 여정의 중추적인 시점은 오직 하느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들 마음 안의 공허함과 대면하게 되는 때이다.

**시작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당신이 계시지않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온전히 당신께 의탁 할 수 있도록하여 주십시오.

### 이냐시오의 경우

이냐시오는 26살때의 자신을 교만, 야망 그리고 파괴적 삶이었다고 묘사하였다. 그의 비서였던 후안 폴랑코( Juan de Polanco )는 젊은 시절 이냐시오 에 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 신앙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과 일치된 삶을 살지는 않았다. 그는 특히 도박과 여자를 쫓아 다니는 일 그리고 결투에 걸잡을 수 없이 빠져있었다.”(Joseph de Guibert, *The Jesuits: Their Spiritual Doctrine and Practice*, p. 23)

그 무렵 팜플로나(Pamplona)에서 포탄이 이냐시오의 다리를 부수었다. 그의 길고 심한 고통을 주었던 회복기 동안, 이냐시오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 하였고, 그의 과거 삶의 공허함을 자각하였다. 그는 자서전에서:

주께서 그를 도와주시어 그 같은 생각에 연이어서 그가 읽은 것에서 다른 생각이 떠오르게 해주시었다. 주님의 생애와 성인들의 전기를 읽다가 그는 간혹 읽기를 멈추고 마음속으로 헤아리는 것이었다. “성 프란치스코나 성 도미니코가 한 일을 나도 하면 어떨까? 하고, 그리하여 그는 좋아 보이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 보았으며, 늘 험난하고 심각한 일들을 자신에게 제안하면서 자기로서는 쉽게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늘 “성 도미니코가 이것을 했으니까 나도 해야 한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 그러므로 나도 하겠다.” 는 식이었다. 이 같은 생각들은 상당히 오래 계속되긴 했지만, 다른 일이 끼여들면 속세의 생각이 되돌아와 많은 시간을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세속적인 업적에 관한 공상과 머리에 떠오르는 하느님의 업적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생각에 지쳐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다른 일에 마음을 돌려버릴 때까지 오랫동안 그 생각에 잠겨 있곤 했다.

거기에는 하나 다른점이 있었다. 세상사를 공상할 때에는 당장에는 매우 재미가 있었지만, 얼마 지난 뒤에 곧 싫증을 느껴 생각을 떨치고 나면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하고 황폐해진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는 일, 맨발로 걷고 초근목피로 연명해 가는 성인전에서 본 고행을 모조리 겪는다고 상상을 해보면, 위안을 느낄 뿐만 아니라, 생각을 끝낸 다음에도 흡족하고 행복한 여운을 맛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것을 이상히 생각지도 않았고 그 차이를 따져볼 엄두도 안 내었다. 그러다가 차츰 눈이 열리면서 그는 그 차이점에 놀랐고 곰곰이 따져보기 시작했으며 드디어는 앞의 공상은 씩씩한 기분을 남기는데 다른 공상은 행복감을 준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달아갔다. 그는 서서히 자기를 동요시키고 있는 두 정신의 차이를 깨닫기에 이르렀으니, 하나는 악마에게서 오는 정신이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었다.

( Olin and O'Callaghan, *Autobiography*, pp.22-23)

**머무름** : 당신 자신에게 물어 보시오, 나는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만 채워질 수 있는 공허함 혹은 삶의 무미 건조함 같은 느낌을 가져 본적이 있는가?

## 이냐시오의 말씀

사람은 우리 주 천주를 찬미하고 공경하고 그 분께 봉사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그외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하여,  
즉 사람이 조성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사물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만큼 그것을 이용 해야할 것이고  
또 방해가 되면 그만큼 배척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에 대해서,  
만일 그것이 우리 자유에 맡겨졌고 금지되지 않았으면, 중용을 지녀야 할 것이니,  
즉 우리는 질병보다 건강을, 빈곤보다 부귀를,  
업신여김보다 명예를, 단명보다 장수함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모든 다른 것에서도,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을 최고의 목적으로  
더욱더 인도하는 사물만을 원하고 선택해야 한다.

( Elisabeth Meier Tetlow, trans., *The Spiritual Exercises of Saint Ignatius Loyola*, p. 11)

## 성찰

이냐시오의 체험은 삶의 공허함에 마주 할 필요가 있는 대부분의 우리와 같은 것이었다. 이냐시오는 자신을 성공, 인정 받는 것 그리고 존경을 향해 몰아갔다. 이 몰아세움의 밑바닥에 있던 것은 깊은 갈망과 내적 공허함이었다. 도박, 외도도 결투도 텅 빈 그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그 채움은 강요되는 깊은 신앙심도 아니었다. 회심 이후, 이냐시오는 지나친 단식과 자신의 몸에 속죄의 매를 가하였다. 이것은 그의 내적 갈망의 유일한 자극이었다.

진실된 회심은 우리가 하느님께로 돌아서고,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 주실 수 있다는 것과 하느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인정 할 때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얻을 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하느님께 열어 놓는다면 그 사랑을 자유스럽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냐시오는 오직 하느님만이 그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 주셨기에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 분께로 가야만 했다.

◆ 펜 혹은 연필을 준비하고 종이위에 당신의 성찰을 자신 앞에서 쓴다. 자신을 평온하게 한다. 백지앞에 고요히 앉도록 한다. 당신의 느낌이 고요해 질때까지 깊이 숨을 쉰다. 당신이 가졌던 공허함, 당신 삶에서의 어떤 심각한 결핍의 강한느낌, 당신 마음안에 텅 빈 아픔의 체험을 회상한다. 그리고 이들 내적 고통과 공허함의 체험들을 묘사하기 시작한다. 모든 당신의 느낌들을 순서나 문법의 두려움없이 쏟아낸다.

◆ 이냐시오는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도박, 외도 그리고 결투를 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빈 느낌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한다. 어떤 이는 과식하고 다른 이들은 연속극에 빠지게 되었다. 일에 빠지게 되면 하느님을 향한 우리들의 내적 열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게한다. 공허한 마음으로부터 숨으려는 당신의 방법들은 오직 하느님만이 채울 수 있다.

◆ 여기에 안내된 목상을 사용해 하느님의 충만 하심에 당신 자신의 내적 열망과 욕구와 접촉하라. 준비 과정에서, 촛불 하나 정도만 켜고 방을 어둡게 한다.

편안히 앉는다. . . . 눈을 감는다. . . . 모든 긴장을 푼다. . . . 발부터 시작해; . . . 긴장이 가버리는 느낌. . . .계속해서 긴장이 되다면 몸의 각 부분을 느슨하게 한다. . . . 그 동안,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쉰다. . . .잠시동안 당신의 호흡에 집중한다. . . .

당신의 깊은 갈망, 완성과 충만함을 위한 내적 고통의 당신의 모습을 당신 앞에 얹혀 놓은 것을 상상한다. . . . 당신의 갈망을, 그녀 혹은 그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 . . 그녀나 그가 묘사하는 깊은 갈망을 듣는다. . . . 텅 빈 공간. . . . 충만함을 위한 열정. . . .

자, 당신의 눈을 뜨고 촛불을 바라본다. . . . 한 단어나 구절의 차분한 기도로 당신의 열망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오라,” “빛,” “예수님,” 혹은 “깊은 구렁으로부터, 저는 당신께 외칩니다.” 비탄스러운 만큼 하느님의 불이 당신에게 차게 요청하면서 이 기도를 되풀이 한다.

◆ 마음의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 의존됨을 선언한다. 당신만의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만든다.

## 하느님의 말씀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내가 율법이 좋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죄입니다. 실상 나는 선이 내 안에, 곧 내 육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선을 원할 수 있지만 행하지는 못합니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는 않고 원하지도 않는 악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 악이 가까이 있다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속사람으로서는 하느님의 법을 보고 기뻐하지만 지체 안에서는 또 다른 법을 보고 있으며, 이 법이 이성의 법을 거슬러 싸우며 죄의 법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 내겠습니까? (로마서 7:15 ~ 24)

**마침 기도** : 주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 피조물에게서는 아무 처방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처방을 찾아 낼 수 있다면 어떠한 일이든지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오 주님,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 주십시오. 강아지를 따라 다녀야 한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도움만 된다면 따라 다니겠습니다. (Olin and O’Callaghan, *Autobiography*, p.35)

## 목 상 2 - 신뢰하는 마음

### (A Trusting Heart)

**주제** : 그 때에 그는 오직 하느님과 관계를 통해만 삶의 충만해진다는 것을 배웠다. 이냐시오는 하느님이 자신을 한 계단 한 계단 이끄시는 것을 신뢰하였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다루듯이 그를 다루셨다.” (Olin and O’Callaghan, *Autobiography*, p.37)

**시작 기도** : 저를 인도하시는 빛의 성령님, 저는 저의 신뢰를 당신께 드립니다.

### 이냐시오의 경우

부상으로부터 회복되는 동안 팜플로나(Pamplona)에서 겪었던 것과 그의 회심을 만나면서, 이냐시오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기로 맹세하였다. 자신의 말에 정직한 그는 그의 다리가 충분히 나았을 때, 그는 긴 여정을 시작하였다. 이냐시오는 전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느님께서 그의 필요한 것을 보여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거지의 삶을 선택하였다. 길고 위험한 여행 끝에 그는 로마에 당도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수중에 예루살렘에 갈만한 돈이 전혀 없음을 보고서는, 그 여행은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충고하면서 돈없이 배타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모로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내심의 확신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교황 아드리아노 6세의 축복을 받은 다음 부활축일 후 8일인가 9일 뒤에 그는 베니스로 떠났다. 사람들이 베니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비에 쓰라고 준 예닐곱 두카트(ducat)가 수중에 있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예루살렘에 갈 도리가 없으리라고 타이른 사람들의 말에 약간 움직여서 그는 돈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로마를 떠난지 이틀째 되던 날에 이것은 자기 자신의 신념의 부족한 소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금전을 받았다는 사실에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서 그는 차라리 그 돈을 내놓는 편이 좋겠다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길에서 만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꺼이 그 돈을 주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하였다. 베니스에 당도했을 때에는 그날 밤을 묵을 콰트리니 엽전 몇 개 밖에는 수중에 없었다.(Olin and O’Callaghan, *Autobiography*, pp.46-47)

이냐시오는 “내심에는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떠한 논리나 이유를 대도 추호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강직한 용기를 얻었다.”(Olin and O’Callaghan, *Autobiography*, p.47) 정말로, 사람이

홀로 돈 한푼없이 순례하는 것을 그는 성지로 가는 여정으로 보여주었다.

**머무름 :** 이 질문을 숙고해 본다 ;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느님을 얼마만큼이나 신뢰하고 있는가?

## 이냐시오의 말씀

그의 친구 이사벨 로저(Isabel Roser)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냐시오는 그녀에게 하느님은 우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므로 고통 중에서도 신뢰하도록 이야기한다.

당신의 두번째 편지에서 당신은 당신이 와병중에 오래 겪었던 고통과 아직도 남아있는 커다란 위의 통증에 관해 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당신과 함께 당신의 고통속에서의 격렬한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위해 상상할 수 있는 행복했던 것과 좋은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이신 우리 주님을 찬미하도록 당신을 도와주도록 할 것 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돌아보면, 이런 허약함과 일시적인 결핍들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느님의 손길로부터 더욱 더 자기만을 인식을 하게 되고, 또한 자신들을 피조물들간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짧은 이 삶에 두도록하고, 끝을 가지고 있지않는 다른 것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 고통들 속에서 그 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방문하시는 그 분을 생각해 볼 때, 병을 통해 저는 어떤 슬픔이나 아픔을 느끼지 않으며, 하느님의 종임을 자각하며, 하느님의 영광과 봉사에도 그의 삶의 방향과 순서를 위해 의사가 하는 것 같이 합니다.

(William J. Young, ed. and trans., *Letters of Saint Ignatius of Loyola*, p. 10)

## 성찰

자신을 억제할 수 있을 때까지 이냐시오는 자기 자신과 그가 갖고있는 재능을 전적으로 믿고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읽고 비추어 보면서, 그의 신앙은 성숙되었다. 그는 예수님이 진리셨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고, 그는 그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는 하느님과 인격적관계 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이냐시오는 하느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하느님이 그를 가르치시고 …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다루듯이 그를 다루셨다.”(Olin and O’Callaghan, *Autography*,p.37) 이냐시오는 이 첫 번째 가르침을 잘 배웠다. 그는 신뢰 속에서 하느님께 전적인 의존과 그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인도를 배웠다.

◆ “이냐시오의 말씀”의 묵상적 독서를 반복한다. 이 글에서 이냐시오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시간을 가지며 듣는다. 특별히 확실하게 당신에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을 때, 이구절에 관하여 이냐시오와 대화를 나눈다. 이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에게 그리고 당신자신에게 묻는다. 당신의 대화가 끝나게 되면, 당신이 성찰한 것을 적는다.

◆ 성서의 이 글을 읽는다.

바위이신 그분의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공정하다  
진실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하느님 …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세우셨다.  
옛날을 기억하고, 대대로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아라. (신명기 32:4 ~ 7)

당신 자신의 세월과 그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성실함을 숙고한다.  
조용히 앉는다. 숨을 깊이 쉬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당신 삶의 과정에서 일어난 적어도 7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을 적는다. 다음에 각 사건에서 그것이 어떻게 하느님 안에서 당신의 믿음과 신뢰를 형성하는 수단이 되었는지를 적는다.  
그 다음에, 다음들의 질문에 당신의 반응을 적는다. 각 사건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났는가? 각 사건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 선함, 지혜 그리고 성장이 오게 되었는가?

◆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느님과 대화한다. 당신을 위한 하느님의 펼쳐진 계획은 당신 삶의 모든 범위 안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어떻게 당신은 더 희망적이 되는가? 어떻게 당신은 하느님의 보호와 후원 그리고 당신을 이끄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는가?

◆ 이냐시오는 그의 영신수련에서 피정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대화에서 힘을 얻는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말 하듯이, 혹은 하인이 주인에게 말하듯이, 바로 지금 돌보아주길 청하고, 바로 지금 잘못된 행위에 대해 슬픔을 표현하며, 지금 걱정을 나누며 조언을 구한다”(Tetlow, *Spiritual Exercises*, p.25). 예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하신다.

지금 당신은 그분 안에서 당신의 신뢰를 잃은 적이 얼마나 되는지, 당신 삶의 어느 부분에서 더욱 신뢰가 필요한지, 그분 안에서 신뢰하기를 거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 말씀 드린다.

◆ 하느님께서 그의 예루살렘 순례중에 그를 위해 내려주신 이냐시오의 신뢰에 대해 숙고한다. 당신은 당신의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기 위해 무엇을 제공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마지못해한 선심 쓰기 나눔을 한 적이 있는가?

하느님께서 당신을 도와 주셨는가? 당신과 다른 이들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신실한 사랑 안에서 당신의 신뢰를 보여 드리기 위해 당신이 실제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 하느님의 말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뽑아 당신 앞에서 사랑으로 거룩하고 나무랄 데 없도록 하셨으며, 당신 선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당신 아들 자격을 얻도록 예정하시어, 사랑받는 당신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당신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한 당신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범행을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온갖 슬기와 깨달음의 은총을 넘치게 하시어 당신 뜻의 신비를 알게 하셨으니, 이는 속으로 정하신 당신 호의에 따른 것으로서 역사를 완성으로 이끌어 하늘과 땅의 만물을 그리스도 아래에 모으시려는 것입니다.(에페소서 1:4 ~ 10)

**마침 기도** :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당신 안에서 저의 믿음과 신뢰가 굳건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냐시오와 같이, 저의 삶의 모든 사건과 환경 안에서 어떻게 현존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침내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 말씀을 말해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열고 저를 희망으로 채우시는 사랑의 당신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들을 수 있게 하소서.

## 목 상 3 - 항 복

(Surrendering)

**주제 :** 사랑의 중심에 있는 것은 오로지 행복이다. 그것은 사랑이신 분에게 나 자신을 돌이킬 수 없게 맺어주는 자아의 완전한 선사이다. 이냐시오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내 맡김으로 그 분과 완전히 일치 하였다.

**시작 기도 :** 인자하신 주님, 저의 의지와 삶을 당신의 돌보심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은총을 청합니다.

### 이냐시오의 경우

16세기 초엽, 이냐시오가 감수성 있는 청년이었을 때, 낭만주의와 기사도의 물결이 스페인을 휩쓸었다. 이 급증한 이야기들과 노래들이 스페인 사람들의 상상력을 정복하였다. 그 중 잘 알려진 것의 하나로 Amadis de Gradia라는 소설이 있다. 이 소설과 그 속편들은 젊은이들의 이상(理想)주의에 흥미를 끌게 하였다.

그것은 세련된 기사 안내서가 되었고, ... 많은 세대들을 형성한 사교적인 관례가 되었다...그것은 16세기 내내 정숙한 품행의 교재, 우아한 대화를 이끄는 경전, 연설의 형식 속에서 좋은 예절들과 화려한 말의 보고(寶庫)로 남게 되었다.(James Brodrick, *Saint Ignatius Loyola, The Pilgrim Years, 1491-1538, p.40*)

이냐시오는 이런 책들을 탐독하면서, 그의 마음을 기사도의 이미지들과 Amadis와 그의 아들 Esplandian 의 모험으로 채웠다. Amadis에게서, 이냐시오는 “완벽한 기사의 전형, 용맹과 예모의 거울, 제후들과 정숙한 연인들의 모범, 약자와 가난한자의 방패와 지원, 도덕 질서와 정의를 위해 봉사하는 강한 무기” 등을 발견하였다(Brodrick, *Saint Ignatius Loyola p.40*)

이냐시오가 그의 삶을 하느님께 맡기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봉헌하기로 한 순간이 왔을 때, 기사로 투신하기 전에 복되신 동정녀의 상 앞에서 불침번을 섰던 Esplandian을 모방하였다. 이냐시오는 자신이 행복하는 순간을 기술하고 있다.

이냐시오는 늘 하듯이 하느님 사랑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곰곰이 머리 속에 그리면서 문세라트로 갔다. 그의 머리 속에는 이나 그와 비슷한 책에서 본 장면들이 가득했으므로 눈앞에 떠오르는 것들도 그와 비슷한 생각들 뿐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갑옷을 갈아입기로 결심했던 몬세라트의 성모 제단 앞에서 앉거나 눕지 않고, 무릎을 꿇거나 서서 온 밤을 깨어 지키기로 했다. ….. 몬세라트에 당도하자 기도를 올리고 나소 고해신부를 찾아 다녔다. ….. 그는 고해심부에게 자기 나귀를 드리고, 또한 자기의 장검과 단검을 성모 성당 안의 성모 제단에 간수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1522년 3월 성모축일 전날 밤, 그는 밤중에 몰래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어주고 그토록 입고 싶었던 그 순례자의 의복을 입었다. 그리고 나서 성모의 제단에 나아가 경건하게 무릎을 꿇었다. 순례 지팡이를 손에 든 채 무릎을 꿇었다 일어섰다 하면서 그는 온 밤을 지새웠다.(Olin and O'Callaghan, *Autobiography*, pp.31-32)

이냐시오는 무기를 들고 밤샘하면서 자신을 하느님께 순전히 봉헌한 유일한 성인으로 알려졌다. 이 생각은 과거의 기사들 이야기에서 얻은 것이지만, 그 행위 자체는 모든 형식을 뛰어넘는 것이며, 천상의 영감을 받은 초자연적 사랑의 행동이었다.(Brodrick, *Saint Ignatius Loyola*, p.86)

**머무름 :** 이 질문을 성찰해 보자 : 나는 하느님께 내 자신을 항복 시켰는가?

## 이냐시오의 말씀

자기 자신을 우리 주 하느님께 묶어 놓는 것 그리고 그 분께 자신을 아낌없이 열어 보이는 것은 완전히 그리고 더 이상 돌이킬 수없이 그분을 섬기도록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다.(p.163)

……. 자신을 우리 주 하느님께 묶일수록 그리고 신성한 왕국의 왕이신 그분께 아낌없이 대하면 대할수록 하느님은 그에게 더욱 아낌없이 대하시며 매일 더 큰 은총들과 영적 선물들을 받을 수 있게 더욱 열려있게 되었다.(George E. Ganss, trans., *The Constitutions of Society of Jesus*, p.163)

## 성찰

몬세라트의 밤 이후, 이냐시오는 하느님께 완전히 봉헌되었다.

하느님은 이냐시오의 생각의 중심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며, 매일의 삶을 이루는 그가 하길 원하는 모든 작은 행동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였다. 그는 하느님께로부터 돌아서지 못하게 묶이기를 위하여,

하느님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흥미거리들을 얻는 생활방식으로 이끌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였다.(Gass, *Constitution*, p.15)

행복의 시점에서, 우리는 이냐시오처럼, 하느님 역의 연극하기를 멈춘다.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이 우주의 인도자이시라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하느님 손바닥에 잡혀있다. 우리 삶에서 평화와 고요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넘겨드리게 될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느님의 품안에서 안식한다. 우리는 행복하고 그 결과를 하느님께 의탁한다.

행복함으로써, 우리가 현재의 시간 안에서 중심을 갖는 삶을 살게 되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체험에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한다면 하느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느님께 계속 행복하는 자세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우리자신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충만한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 “이냐시오의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묵상하며 다시 읽는다. 특별히 당신에게 도전이나 위로를 주는 구절을 고른다. 이 구절들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하며 그것에 머무른다.

◆ 당신 안에 있는 어떤 충동이나 성향들을 조절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당신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조절될 수 없을 것 같은 영역들을 되새겨본다. 그것은 아마 누군가에게 또는 당신 자신에 대한 해묵은 분노, 또는 그룹 안에서 빛나려거나 나서려는 강박감, 모든 상황들에서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성향, 또는 언제나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 등일 수 있다. 당신 자신의 무력함에 접하게 될 때, 하느님이 당신의 내적 자아를 이미 알고 계시고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 무기력에 대하여 하느님께 말씀 드려라. 그러한 충동들을 하느님의 돌보심에 복종시키고 당신 자신을 하느님의 은총과 권능에 기꺼이 열어 맡길 수 있는가?

◆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모든 멋진 선물들의 목록을 적어본다: 친밀한 우정관계, 선한 행실, 당신의 가족이나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 등등. 이러한 선물에 대하여 하느님과 대화한다. 이 선물들을 하느님께 복속시키는 일은 쉬운가? 그대가 이 선물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선물들이 당신에게 주어졌는지 하느님께 여쭙어보아라.

◆ 이 질문을 새겨보라: 내가 하느님의 뜻에 복속 시키기를 꺼리는 내 삶의 부분들은 어떤 것들인가?

◆ 내가 하느님의 뜻에 복종할 경우 내 삶이 더 나아질 여러 가지 방법들의 명세서를 작성한다.

◆ 하느님께 항복하기위한 당신 자신의 기도를 적는다. 당신의 충동, 선물들, 두려움들, 그리고 성취들을 하느님의 뜻에 복속 시키도록 작성한다. 이 기도를 자주 바치되, 특히 당신이 무력감을 느끼거나 혹은 특별한 힘을 느낄 때 꼭 바친다. 당신의 기도는 하느님이 당신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돌이키게 해줄 것이다.

◆ 이냐시오는 성모상 앞에서 무기를 들고 지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항복을 의식화 했다. 하느님 뜻에 대한 당신의 항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스스로의 의식을 창조하라; 그리고 나서 항복을 행하라. 당신의 삶을 하느님께 넘긴다는 결정에 대한 눈에 보이는 상징을 간직하라; 당신이 항복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상징을 되새겨 보라.

## 하느님의 말씀

나는 나에게 이익이 되었던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으며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리하여 율법에서 오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을,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게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그분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분의 죽음을 닮아 죽은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내가 그것을 벌써 얻었다거나 이미 완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혔으므로 나도 어떻게 든 그것을 얻으려고 달음질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몸을 내뻗치고 있습니다. 목표를 바라보며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에서 부르며 주실 상을 얻고자 달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들인 우리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엇인가 달리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느님이 계시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것을 지켜 나갑시다.(필립비서 3:7 ~ 16)

**마침 기도** :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력과 지력과 모든 의지와 내게 있는 것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소서. 당신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주여, 그 모든 것을 당신께 도로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오니, 온전히 당신 의향대로 그것들을 처리하소서. 내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이내게 족하나이다. (Tetlow, *Spiritual Exercises*, p.79)

## 목 상 4 - 철저한 정직

( Radical Honesty )

**주제 :** 하느님께로 돌아서기 위해, 이냐시오는 처음에 자신의 죄스러움, 공허함,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의존을 진실되게 마주할 필요가 있었다. 이냐시오는 그 자신을 철저한 정직의 실천으로 내몰았다.

**시작 기도 :**

하느님, 저를 살펴보시고 저의 마음 알아주소서.

저를 파헤쳐 보시고 제 근심 알아주소서.

죽음의 길 걷는지 살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주소서. (시편 139:23-24)

### 이냐시오의 경우

다리부상으로부터 회복되는 오랜 시간동안 이냐시오는 그 자신의 신체적 허약성 뿐이 아니라 도덕적 허약성까지 고통스럽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의 부상 이전에 그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영예와 쾌락들에 대한 생각은 이제 그를 슬프게 하고 괴롭히게 되었다. 이러한 낙담스러운 생각들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날을 더욱 진지하게 반성하게 되고 속죄해야되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급기야는 성인들을 본받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것은 거의 생각지 않았으나, 성인들이 한 것처럼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서원을 했다.(Olin and O'Callaghan, *Autobiography*, p.24)

이냐시오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정직하고 근본적인 진단을 시작하였고, 이는 그를 예수께 대한 철저한 투신으로 이끌게 되었다. 그의 영적 회복을 위한 한 방편으로, 그는 예루살렘을 순례할 것을 서약하였다. 그의 가족은 그의 여행을 완강히 반대하였지만, 이냐시오는 확고했다.

그의 형은 그를 데리고 이방 저방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을 버리지 말고, 그의 창창한 미래와 관직을 생각해 보라고 그의 의향을 꺾을 목적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열거해 가며 만류하였다. 그러나 그는 진심을 감추는 것에 대단히 민감해 있었기에 진심을 감추지 않고서, 형의 집을 떠나 나올 수 있을 정도로만 대답하였다. (Olin and O'Callaghan, *Autobiography*, p.26)

이냐시오는 자신을 진정으로 쇠신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정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의 순례 초기에, 이냐시오는 철저한 정직을 위한 또 다른 진전을 시도했다. 몬세라트에서, 그는 자신의 죄들 모두로부터 깨끗해질 마음을 가질 결심으로, 그의 잘못들의 모든 무게를 지기로 하였다. “그는 기도를 올리고 고해신부를 찾았다. 죄상을 적는 데 사흘이나 소비한 뒤 그는 총 고백을 했다.”(Olin and O’Callaghan, *Autobiography*, p.31) 비록 나중에 세심증에 빠지게 되지만, 이냐시오는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 온전히 정직해짐으로서 거룩함을 행한 그의 길을 출발했다.

**머무름 :** 이 질문을 숙고해보라 : 나의 생각들, 느낌들, 말들, 그리고 행위와 그들의 구분에 대한 더 큰 정직으로 나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 이냐시오의 말씀

영신수련의 네 주간 가운데 첫째 주간 전체에서 이냐시오는 피정자들이 그들의 죄스러움을 목상하고 용서를 준비하도록 지도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 죄를 인정하고 뉘우쳐 그리스도께 돌아서도록 촉구했던대로, 이냐시오도 피정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였다. 첫째 주간의 두 번째 목상에서, 이냐시오는 이렇게 말한다:

**첫째 요점 :** 죄를 성찰함이니, 내가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한해 한해씩, 또는 한시기 한시기씩의 생활을 살피면서 성찰해 나갈 것이다. 그것을 잘 하려면 다음 세가지가 도움이 될 것이다.

- 1) 지금까지 내가 살고있던 장소와 집에 대하여,
- 2) 내가 상종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 3) 과거의 나의 직업생활에 대하여 생각 할 것이다.

**둘째 요점 :** 죄의 무게를 달아볼 것이니, 즉 대죄를 범함은 그 종류의 여하를 막론하고, 비록 그것이 금지되지 않았다 가정되는 경우에도, 그 자체가 얼마나 더럽고 악랄한지를 생각해본다.

**셋째요점 :** 내가 범죄함으로써 반역한 하느님은 누구이신지를 생각함이니, 즉 하느님의 속성들을, 그와는 반대되는 나자신안에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분의 전지를 나의 무식과, 그분의 전능을 나의 무능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의 불의함과, 그분의 전선(全善)하심을 나의 악함과 비교해서 생각한다.

**다섯째 요점** : 마음으로 모든 피조물을 차례로 훑어보며, 어떻게 그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게끔 참아왔으며 또 내 목숨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었는가를 생각하고, 크게 감동하여 경탄의 소리를 발할 것이다. 즉 천사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하심의 큰 칼이면서도 어떻게 나를 참아 견디며 지켜주었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었으며 성인들은 어떻게 나를 위하여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기도하여주었으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원소와 열매들, 새들과 물고기들 및 짐승들은 나에게 봉사해 왔으며, 또 땅은 어찌하여 나를 집어삼킬 입을 벌려서 나를 영원히 형벌할 새로운 지옥을 만들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등이다.

**답화** : 자비하심의 담화로 끝마친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 은총의 도움으로 지금부터는 개과천선하도록 권고하시면서, 아직도 내게서 생명을 거두시지 아니하셨음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 (Tetlow, *Spiritual Exercise*, pp.26-27)

네 주간의 영신수련 마지막에서, 이냐시오는 피정자에게 하나님의 부어주신 많은 선물들을 인정하는 것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할 것들을 인식하는데 있어 똑같이 정직하도록 촉구하였다.

## 성찰

정직은 겸손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우리의 피조물성으로 인한 고통과 환희 양쪽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인간됨을 긍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땅에 속해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 안도록 불리움 받았다.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잠재 가능성을 완성하는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겸손-진리를 받아들임-은 정직을 요구한다. 정직과 겸손은 우리에게 항복 또는 우리가 원하는 통제, 안전, 존경, 그리고 승인받고자 하는 욕망들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정직과 겸손은 이냐시오가 그랬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로부터 떼어놓는 우리 삶의 패턴들에 대하여 성찰하도록 이끈다. 그리하여, 의식성찰은 이냐시오의 영성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그는 영적지도와 고백을 위하여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들 영혼을 철저히 성찰하는 일을 지속하도록 격려했다. 이러한 의식성찰은 진정한 내적치유와 쇄신을 위하여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다.

이냐시오는 그 자신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그의 죄스러움을 확인하고 낱낱이 밝혀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만이

이를 가능케 하였다. 마찬가지로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도 허용된다. 하느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함과 하느님의 용서가 가져다주는 자유를 기대할 수 있다.

◆ “이냐시오의 경우”에 나오는 이냐시오의 회심이야기를 다시 읽도록 한다. 이냐시오의 형은 그가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회심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썼다. 어떤 인간이나, 상황, 또는 내적인 갈등이 당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쇠신하는데 방해를 하는가?

◆ 당신 영혼의 상태에 대한 성찰을 갖는다. 당신의 일기에 의식 성찰한 것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신의 묵상에 집중하려면, 예수 고상이나 고난 상본을 앞에 두도록 하라. 몸과 정신을 모두 고요히 한다. 사랑의 하느님이 그대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하라. 그대의 인생에 대한 성찰에 들어가면서 하느님께 대한 그대의 의탁을 표명하고 그대가 가장 원하는 은총을 청하라. 벗이 벗에게 하듯이 예수께 말씀 드려라. 그리고, ‘이냐시오의 말씀’에 설명된 단계들이나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사용하여 성찰을 시작하라:

- ◇ 예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스스로 믿도록 허용했던가?
- ◇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응답해 왔는가?
- ◇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는 지금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 ◇ 통제능력, 다른사람의 존경, 또는 안전에 대한 나의 욕구가 복음을 따르려는 나의 약속을 손상시켰는가?
- ◇ 나의 억지와 실패들에 대하여 내 스스로에게 정직했는가?
- ◇ 하느님의 사랑에 의탁하려고보다 부와 재산, 지식, 보상, 그 밖의 것들을 얻는 것으로 대신하려 노력한 적이 있는가?
- ◇ 내 자신의 느낌을 잘 인식해 왔는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잡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 ◇ 예수님의 길대로 사는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만들었는가?
- ◇ 하느님 사랑을 신뢰하고 내 자매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진 또다른 일들이 있는가?
- ◇ 하느님은 내게 어떤 재능, 자질, 그리고 기술을 주셨는가?
- ◇ 그 밖에 어떤 다른 축복들을 하느님은 내게 부여주셨는가?
- ◇ 나의 창조주께서 나는 어떻게 감사드렸는가?
- ◇ 그대의 현재 삶에서 근심이나 부끄러움, 떨리는 분노를 느끼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 좀더 그리스도처럼 행동 할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 두가지 상황에 대하여 예수께 의논드린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내려주신 모든 선물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기도를 드린다.

◆ 다음 “개인적인 겸손의 목록”기도를 각 구절마다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묵상하며 바친다:

칭찬 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예수님, 저를 건지소서.  
영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예수님, 저를 건지소서.  
먼저 대우받고 싶은 욕망에서 예수님, 저를 건지소서.  
상담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서 예수님, 저를 건지소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예수님, 저를 건지소서.  
편안과 안락의 욕망에서 예수님, 저를 건지소서.

.....  
비판받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예수님, 저를 건지소서.  
소홀히 넘겨질 두려움에서 예수님, 저를 건지소서.  
잊혀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예수님, 저를 건지소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에서 예수님, 저를 건지소서.  
상처받을 두려움에서 예수님, 저를 건지소서.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서 예수님, 저를 건지소서.

오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여,  
저의 힘이 당신의 힘을 닮게 하소서.

아멘 (J. Veltri, *Comp. Orientations*, Volume 1, p.108)

### 하느님의 말씀

당신의 선하심으로, 오 하느님, 저를 붙잡히 여기소서;  
온유하심으로 저의 잘못을 지워주소서.  
저에게서 죄를 씻어주시고;  
저의 죄악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저의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으며;  
저의 죄들이 늘 제 마음에 있사옵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에 악한것을 제가 행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  
제안에 깨끗한 마음을 만드소서;  
군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1-10)

**마침 기도** :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여, 제 마음을 당신 마음과 닮게 하소서.

## 목 상 5 - 하느님의 뜻에 순종

( Obeying God's Will )

**주제** : 예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이냐시오의 생애를 형성했다. 항상 준비되어있고,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은 그의 순종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었다.

**시작 기도** : 은총이신 하느님, 제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의 귀를 열어주시어, 저의 삶속의 모든 환경에서 항상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수 있게 하소서.

### 이냐시오의 경우

이냐시오는 그의 영적 여정에서 일찍부터 “순명은 희생보다 낫다”(사무엘 상15:22)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하느님께 모든것을 항복한 후, 양심의 가책들에서 발버둥 치는 동안 순명을 배우게 되었다.

몬세라트에서 그는 단단히 준비하고 성찰한 바를 빠짐없이 기록까지 하여 총고백을 했음에도, 그의 말을 빌리면, 어쩐지 몇 가지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에게는 큰 근심이 되었으며, 빠뜨렸다고 생각되는 일을 고백하고 나서도 아무래도 안심이 안되었다. 이 소심증을 치료해 줄 만한 훌륭한 사람을 찾아다녀오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대성당에서 설교를 맡은 학식 많고 영성 깊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고해성사를 주면서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두 써용으라고 시켰다. 그 말대로 했으나 고해성사를 받고 나자 소심증은 곧 되돌아왔으며, 그때마다 더 미미한 일들이 생각나서 번민은 갈수록 심해졌다. 이 세심이 그를 해롭게 하니, 그것을 떨쳐 버리는 편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했지만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가누는 것이 또한 어려웠다. 때로는 과거의 일은 더 이상 고백하지 말라고 고해사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한테 엄명을 내린다면 아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해사제가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고해사제에게 차마 그 말을 꺼낼 수는 없었다. 그런데 본인이 입밖에 내지 않았음에도, 사제는 정말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과거의 일은 더 이상 고백하지 말라고 명을 내렸다. 하지만 과거이 모조리 분명하게만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명령은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그래서 곤란은 그치지 않았다..... 세심증에 시달림받는 나날이 여러 달이나 계속 되었다.

..... 간절한 소망을 하느님께 받기 위해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 여러 날을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견디었던 성인의 이야기가 문득 머리에 떠올랐다. 한참 그 일을 생각하다가 자기도 그렇게 하기로 드디어 작정했다. 하느님께서 자기 세심을 치유해 주실 때까지, 아니면 죽음이 진실로 임박했다고 느껴질 때까지 식음을 전폐할 것을 다짐하였다. 먹지 않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느껴질 때는 빵을 달라고 청해서 먹기로 했다. 물론 빵을 달라고 청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먹을 기운이 아직 남아있을 때 하는 말이다.

그는 주일에 영성체를 하고 나서 고행을 시작하였다. 한주간 내내 아무것도 안 먹었으나 평소의 신심업은 그대로 하며 성무일도에 참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면서 여러 밤을 새우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주일에 그는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서 고해사제에게 자기가 한 일을 자세히 아뢰곤 했으므로 그 주간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낸 일을 말씀드렸다. 그의 고해사제는 단식을 당장 그만두라고 명하였다. 자신은 아직도 체력이 왕성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제의 말에 복종하였고, 그래서인지 그날과 이튿날은 세심에서 자유로워진 느낌을 받았다. (Olin and O'Callaghan, *Autobiography*, pp.34-36)

**머무름** : 순명이라는 낱말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숙고 한다.  
순명은 당신의 생활양식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 이냐시오의 말씀

예수회 형제들에게 보내는 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희망은 다른 어떤 덕보다 더 순명이라는 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서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 예를 들고 또 말씀을 통해 찬양한 대로 순명의 상태에 있는것이 더 특별히 좋은것 뿐만 아니라, 그레고리성인(St. Gregory)의 말씀대로 “순명은 그 자체가 다른 모든 것을 영혼에 각인시키고 또 각인되면 그대로 보존하는 하나의 덕”이기 때문입니다. 순명의 덕이 꽃피게되면 다른 모든 덕들도 꽃피워지고, 내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바라고 또 그분께서도 바라는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그분은 불순명 때문에 잃었던 세상을 순명하심으로 구속(救贖)하셨습니다. (p.303)

……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순명을 명하실뿐만 아니라, 그 분의 그 순명의 본보기 위에, …… 우리 주 하느님의 진리와 참사랑이 그 분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소유하시고 순례도중 인도하시어, 그 분의 영원한 행복으로 이르게 되는 최고의 행복을 위해 나는 당신께 기도합니다. (“Letter on Obedience,” in Antonio T. de Nicolas, *Power of Imagining: Ignatius de Loyola*, p. 311)

## 성찰

Obedience(순명)라는 낱말은 “to listen(듣다)”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단어에 유래한다. 이냐시오는 그의 고백신부를 통해서 그 자신의 마음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가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포기하고 귀의했을때 그의 마음은 변화되어졌다. 결국, 하느님의 뜻이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냐시오는 그의 고백신부에게 순명했을 때, 자신을 양심의 가책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고, 그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이 사건은 그의 일생동안 시금석이 되었다. 그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가 하느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다른 많은 예를 본다.

그의 순명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은 이냐시오 자신의 내부에서 활동하였다. 역설적으로 이냐시오 자신이 영적 지도자, 교회 장상, 그의 경험들 그리고 그의 자신 내면으로부터 성서에 쓰여진 하느님의 뜻에 맡겨짐에 따라 그는 확신을 가지고 영적 여정에 한 걸음씩 걸을 수 있었다.

◆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듣는가? 우리는 언제 순명해야 하는지를 아는가?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 차있고, 또 삶이 충만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다음의 각 질문을 자신에게하고 기억, 상상 그리고 이해를 통해 자유롭게 생각과 예를 들어 답을 적어 본다.

- ◇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사람들은?
- ◇ 내가 믿음을 갖는 대상은? 내 삶을 통해 나를 이끄는 믿음의 별은?
- ◇ 내 희망의 근원은? 무엇이 나에게 모든것이 다 잘 될것 이라는 기대를 주고있나?
- ◇ 나는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대한 순명처럼 이 모든 사람들 또 사랑, 믿음, 희망의 근원에 대한 나의 응답을 보았는가?
- ◇ 나는 언제 이런 사랑, 믿음, 희망으로 부르시는 하느님으로부터의 부름을 외면하였는가?

기도중에 당신이 하느님의 뜻-信,望,愛-에 순명하였을 때마다 감사한다.

하느님의 뜻에 불순명 하였을때마다 하느님께 용서를 청한다.

당신 스스로 하느님의 뜻에 더욱 더 순명할 수 있게 되어지는 방법에 대해 묵상하고, 온 마음으로 듣고 순명한다.

◆ 당신이 순명해야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든다.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 이냐시오는 예수회의 훈련 속에서 양심의 표명(manifestation of conscience)를 소개하고 있다. 각 회원은 모든 기쁨, 고통, 성공과 실패를 거리낌없이 명백하게 나눌 수 있게 약속하게 되어있다. 같은 정신에서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현명한 사람과 함께 당신의 순명, 반항, 실패 그리고 의도된 순명에서 받은 선물 등의 경험을 나눈다.

◆ 정원이 있는 그림을 그리고 정원 가운데에 순명을 나타내는 심볼을 그린다. 그 심볼 주위로 순명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나타내는 심볼들을 그려본다. 이제 그림을 가지고 묵상한다. 그림에 표현된 순명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보이는가? 명백한 순명의 열매인가? 당신 자신에게 나타난 순명에로의 부르심과 뜻을 간직하고 있는 성서구절을 인용하여 그림에 제목을 붙인다. 예수님을 초대하여 함께 당신의 정원을 걷도록 한다. 당신의 정원에 열린 열매를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즐긴다.

## 하느님의 말씀

그분은 육신으로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느님은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드님이지만 고난을 겪음으로써 복종을 배우셨고 완전하게 된 후 당신께 복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되셨으며 하느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본을 따라 대제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히브리서 5:7 ~ 10)

**마침기도 :** 당신의 빛과 생명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어 우리가 당신의 놀라우신 영광 앞에 있게 하여주십시오. 당신을 위한 모든 일들은 너무나 작고, 드리기에는 너무나 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Prayer of Ignatius of Loyola,” in Tony Castle, comp., *The Book of Christian Prayers*, pp.153-154)

## 목 상 6 - 예수 그리스도와의 열정적인 만남

( Passionate Union with Christ )

**주제 :** 이냐시오는 친밀하고 또한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이 되어 살았다. 점진적으로 모든 순간 순간이 “나와 함께” 하자는 그리스도의 초대에 대한 응답이 되었다.

**시작 기도 :** 사랑하는 하느님, 제 내면 깊숙이에서 부터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과 하나 되도록 초대하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오너라, 나의 사랑으로/사랑스러운 너, 오너라” (Song of Songs 2:10).

### 이냐시오의 경우

하느님께서는 이냐시오의 하느님에 대한 큰 사랑을 그의 생애의 두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행해졌던 로마로의 순례도중 알게 되었다.

사제가 된 후에도 그는 자신을 준비하고 성모께서 자기를 성자와 한자리에 있게 해주시기를 빌면서 일년간 미사를 지내지 않고 보내기로 결심한 바 있었다. 로마를 몇 마일 남겨두고 하루는 어느 성당에서 기도하는데, 그는 자기 영혼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였다. 그리고 성부께서 자기를 당신의 성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환시를 선명히 보았으며, 성부께서 자기를 성자와 함께 있게 해주셨음을 추호도 의심할 바 없었다.(Olin and O’Callaghan, *Autobiography*, p. 89).

……… 내면 깊숙이 이냐시오는 그자신이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하게 일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는 그자신에 의해 설립되어진 공동체가 전적으로 그분께 봉헌되어야 하고 그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어지기를 바랐다. (Candido de Dalmases, *Ignatius of Loyola, Founder of the Jesuits*, p. 153)

신비스런 받아드려짐과 확인의 경험은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계속 확실한 의미로서 여겨졌다. 그는 자주 그의 일기와 다른 글에서 이런 것들을 인용하였다. 상상은 구도적 기준틀로서 또 위로의 원천으로 작용되었다. 예로서, 예수회 공동체내에서 가난의 실천에 관한 결정에 대해 그의 일기에 쓰여진 바로는, 이냐시오는 다음과 같이 상상에서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비록 아무 위안도 없었고, 예수께서 모습을 보이시거나 또는 보이신 것 같은 느낌도 없었지만, 성삼위께서 하시는 일 같았고, 또 성부께서 성자와 함께 있게 했던 것을 기억하므로서, 이들 생각이 점차적으로 강해져서 확신으로 까지 여겨지는 생각으로 바뀌었고 결정이 이루어졌다.(Richard Ward Dunphy, *Placed with Jesus Bearing His Cross*, p. 337)

이냐시오는 그가 특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여정의 단계에 한 것들은 사실을 요점 정리하여 상자에 보관하였다.

**머무름 :** 이냐시오의 경우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결합에 대한 당신의 욕구를 대신해 말해주고 있는가?

## 이냐시오의 말씀

새로운 예수회 회원들에 대한 지침에서 이냐시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음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가 사랑하고 선택한 것은 무엇이든지 있는 힘을 다하여 수용하고 열망하는 일이야말로 영신생활의 진보에 얼마나 큰 도움과 이익 이 되겠는가! 마치 세상에 속하는 것들을 따르는 현세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르침대로 명예와 명성과 지상에서의 위인 평가를 매우 열성적으로 사랑하고 추구하듯이, 영신생활에 정진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은 이와 반대되는 것들을 간절히 사랑하고 열망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주님과 꼭 같은 복장과 제복을 입고자 해야 한다. 또한 지존하신 하느님께 욕되지 않고 이웃에게 죄가 될 염려가 없는 한, 모욕과 위증과 경멸을 당하며, 바보로 여겨지고 취급 받기를 원해야 한다.(그러나 일부러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장과 제복을 입음으로써, 어떤 면에서 그분과 비슷해지고 그분을 본받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보다 큰 영적 진보를 위하여 그 복장과 제복을 입었다. 그리고 가능한한 만사에 있어서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당신을 본받고 따르고자 하도록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 주셨다. 그분은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길이기 때문이다.(Ganss, *Constitutions*, pp.107-108)

## 성 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과 일치하도록 부르신다. 하느님께서 라 스토르타(La Storta)에서 이냐시오에게 주셨던 은총과 똑같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은, 성서 안에 있는 예수님처럼 또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입고, 그분의 삶 양식 안에 삶의 모든 것을 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활동이 지향되어 지는 것이다.

이냐시오는 원래 그의 동료들을 위해 “예수의 친구”(Company of Jesus)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그 이름은 그와 그의 동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같이 하느님께 대한 봉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불리움을 받았다는 이냐시오의 회심에 근거한다.(De Guibert, *Jesuits*, p.39)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동반자가 되도록 초청되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러하듯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속해있다. 우리는 이냐시오가 겪었던 것같이 크게 혹은 작게 어려움을 겪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바라고 또 받아들인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 다음의 것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모습 또는 성화상을 가지고 관상 한다.

몸의 긴장을 풀고,  
깊은 호흡을 한다.  
성화상이나 그리스도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그리스도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 본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한 말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마르코, 8:28)에 대해 묵상 한다. 당신은 예수께 무엇이라고 답을 드리고 있는가? 당신의 삶은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하는가?

◆ 영신수련 둘째 주간에서 이냐시오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고자 하는 욕구를 명백히 하도록 초청하고 있다. 영신수련중 “두개의 깃발”에서 우리 인간의 적인 사탄이 우리들을 속박하고 노예화하는 데에 반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삶의 충만함으로 이끄는지 숙고하도록 인도되고 있다. 그리스도와 하나되기를 바라는 당신의 욕구를 볼 수 있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해 기도한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에 대해 이해하고 또 살아가고자 하는 바램을 하느님께 간청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 성서의 줄거리나 문구들을 가슴에 떠올리고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이나 행동으로서 가르치신 것에 대해 숙고한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무엇에 초대하셨는가? 초대하시는 태도나 방법은 어떠하신가?
  
- ◇ 당신이 하느님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중재를 청한다. 당신이 모든 것으로 부터 자유스러워져서 당신의 모든 재능, 소유, 성취달성을 그리스도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청한다. 그리스도의 삶, 마지막일지라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죄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께서 당신으로부터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처럼 가난과 개인적인 모욕을 견디어 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청한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 기도한다.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서로 다가가서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성부께 은총을 청하시는 기도와 똑같이 기도한다. 그리고 천천히 각각의 낱말 의미에 대해 묵상하면서 다음의 “그리스도의 영혼은(Soul of Christ)”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Anima Christi*)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하소서.  
그리스도의 성혈은 저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능방의 물은 저를 씻으소서.  
그리스도의 수난은 저를 격려하소서.  
착하신 예수님, 제 청을 들어주소서.  
주님 상처 속에 저를 숨겨주소서.  
저를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저를 악한 원수로부터 보호하소서.  
제가 죽을 때 저를 부르시고  
또한 저를 주님께 데려가 주시어  
성인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 David L. Fleming, *The Spiritual Exercises of Saint Ignatius*, p.3)

- ◇ 예수님과 마리아 앞에서, 또 그분들에 의해 봉헌되어진 채로 하느님께 나아간다. 다시 그리스와 일치될 수 있는 은총을 청 한다. “주의 기도”로 끝마친다.

◆ 하루를 지내면서 이냐시오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라는 말을 가지고 기도한다.

##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 버렸고 새 인간으로 갈아 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와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 할례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타국인, 야만인, 노예, 자유인 따위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로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뽑아 주신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성도들이며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 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골로사이 3:9-15)

**마침 기도 :** 영원하신 하느님, 나를 굳게 하소서. 영원하신 성자여, 나를 굳게 하소서. 영원하신 성령이여, 나를 굳게 하소서. 천주 성삼이여, 나를 굳게 하소서. 나의 오직 하나이신 하느님, 나를 굳게 하소서. (William J. Young 역, *The Spiritual Journal of Saint Ignatius Loyola*, p.

## 목 상 7 - 자비로운 우정

(Compassionate Friendship)

**주제 :** 역사에서는 이냐시오 성인을 군대의 사령관 같은 인물로 묘사하나 그의 첫 번째 동료들의 말을 인용하면 그는 친교에 타고난 재주를 지녔고 상대방을 배려 해주고, 용기를 주는 인정 많은 사람이었다.

**시작 기도 :**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생각을 일치하게 해주시고 사랑 안에서 한마음을 이루게 하소서.

### 이냐시오의 경우

예수회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친구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일 처음 모였던 동료들에게 이냐시오는 사랑하는 친구로 기억되고 있다.

이냐시오의 지도 방식은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같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였다. 어느 누구도 차별을 하지 않아서 각자는 다 아버지께서 자기만 각별히 아끼시는 것같이 느꼈다. 그는 온유해야 할 때와 엄격해야 할 때를 잘 구분하였다. 이냐시오 자서전을 기록했던 카마라는 이냐시오가 사랑에 좀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수회 안에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거나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버지의 해석(the Father’s interpretations)”이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좋게 해석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단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장려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오락이었다. 하루는 그에게 어떤 사람이 금식하는 날에는 저녁 식사를 안 하니까 휴식 시간을 없애야 하는지 물어 보았다. 그는 대답하길 휴식은 식사 후 즉시 공부를 하면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형제들이 서로 사귀는 가운데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느끼게 하고 박애 정신을 길러 준다고 하였다.(Pp257-258)

이냐시오는 애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환영하였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기쁨을 안겨 주고 싶을 때는 진정 가슴속으로부터 표현하였다. 그 예로서 바로 도착한 키가 아주 큰 청년을 끌어안고 환영하고 싶어서 키가 적은 이냐시오는 경충 뛰어서 청년의 목을 감싸 안은 적이 있다(P261). Roman 대학교 학장이셨던 세바스티아노 로메이(Sebastiano

Romei)는 대단히 즐거운 시간 이었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냐시오가 참석하여 대화로 공동체의 모든 회원들의 삶을 가져왔기 때문 이었다.(Dalmases, *Ignatius of Loyola*, p.260)

**머무름** : 이냐시오가 자기 동료들을 사랑했던 부드러움과 감수성을 숙고해 보자.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좋은 점들을 당신은 가지고 있는가?

## 이냐시오의 말씀

이냐시오는 전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회원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조언을 예수회의 회칙 안에 요약하여 놓았다.

회원들은 세계 도처에서 신자들과 비신자들간에 흠어져 살고 있으므로 우두머리와의 일치 및 회원 상호간 일치가 어려울수록 그 일치에 도움되는 것들도 더 열렬히 추구해야한다. 회원들이 그들 상호간 및 그들의 우두머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본회는 유지될 수도 통솔될 수도 없고 따라서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추구하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영혼의 일치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p.285) 회원 상호간에 및 그들과 우두머리간의 일치를 굳히는 양측의 주요 유대는 우리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장상과 일반회원이 무한히 선하신 하느님과 밀접하게 일치 되었다면, 전선하신 하느님한테서 유래하여 모든 사람에게, 특히 본회 전 회원에게 확산되는 동일한 사랑을 통하여 장상과 일반회원간에도 매우 쉽게 일치될 것이다. 그러므로 양측에서 발휘되는 애덕과, 일반적으로 일치정신에 부응하는 행동 기준인 덕성과 덕행도 이 일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교리, 판단, 의사와 같은 내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사람과 장소와 그 밖의 다양성이 허용하는 한, 복장과 미사 예식과 그 밖의 문제와 같은 외형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크게 도움될 것이다.(Ganss, *Constitutions*,p.291)

## 성찰

이냐시오는 형제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돌보았다. 아버지의 인자함으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각 동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였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격려와 도움과 개개인의 필요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냐시오는 자기 자신과 각 동료간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 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함이 두드러지는 모임 안에서 성숙된 마음에 결속을 이루어 냈다. 처음부터 동료들은 각기 다른 국적을 가졌다. 그들은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임무에 종사하였고 지정된 국가에 파견 되었다. 이냐시오는 친교를 육성하고 동료들간에 부지런히 대화할 것을 권장했다.

초기의 공동체는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문제들을 토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한곳에 모였다. 이냐시오와 동료들은 이런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했고 서로 즐기며 선한 의도로 강하게 단합되고자 마음들을 나누었다. (Javier Osuna, *Friends in the Lord*, P.61).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관심과 공감과 나눔과 우정의 발전을 통한 공동체를 형성하라고 하셨다. 실제로 초대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가르치면서 얼마나 서로 사랑하였는지 말하고있다. 많은 자비심으로 이루어진 우정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지속시키고, 확인시키고 그곳으로 초대한다.

◆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나 주님 안에서의 친구들의 이름을 열거한다. 그들은 집안 식구나, 교회 공동체나, 본당 공동체나, 학교 동창회나,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나 다른 협력 단체의 멤버 일수 있다. 이제 다음 질문들을 잘 생각해 본다.

- ◇ 이 사람들과 사랑을 기르고 생명을 나눌 정도의 관계로 육성하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 ◇ 의견이 서로 다르고, 다양하고, 반대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 ◇ 이런 관계 안에서 마음에 일치할 경험하는 정도로 만족하는가? 그 사람들 안에서 사랑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 대인관계에서 당신의 소홀함을 누구로부터 용서 받기 원하는가?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가?

당신 공동체의 각 회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각각의 관계들과 공동체를 계속 건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한다.

◆ 이냐시오는 특별히 온화함과 강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대단히 융통성 있어서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성격에 자신을 적응시켰다.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거나 바로 잡아야 할 때 그는 상대방의 장점, 분별력, 부족한 점을 미리 생각하였고 따듯한 통찰력을 소유하였고, 말썽이 있는 인물을 책망하거나 선도하는데 탁월하였다.

친한 친구와 또 싫어하는 친구를 각각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본다.

- ◇ 나는 \_\_\_\_\_의 감정에 민감한가?
- ◇ 나는 어떻게 \_\_\_\_\_와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가?
- ◇ 나는 어떤 실질적인 방법으로 \_\_\_\_\_의 관계를 향상시키는가?
- ◇ 나와 \_\_\_\_\_의 관계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 ◇ 나는 무엇을 \_\_\_\_\_에게 요구하는가?

각 사람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은혜를 청하면서 각 관계를 예수님과 상의한다.

◆ “이냐시오의 경우”에서 그분이 경중 뛰어 젊은 청년을 포옹하는 장면을 상상하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애정을 얼마나 즉각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하는지 자신에게 물어 보라. 그런 다음 당신의 사랑을 즉각적으로 드러나게 또 관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불러일으키도록 은혜를 청하라.

◆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화하라.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하고 난 뒤엔 그 친구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라.

## 하느님의 말씀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몬산에서 시온산 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 곳은 야훼께서 복을 내린 곳,  
그 복은 영생이로다. (시편 133)

### 마침 기도:

주님 오랫동안 또 지금도 내 이웃에게 사랑을 게을리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 모습의 빛 이 나를 통해서 이웃의 생명 안에 비추도록 해주소서. 주님, 모든 것에서, 내 이웃의 영혼 안에서, 그들의 가장 개인적인 곳에서, 그들의 진실 속에서, 가장 먼 곳에서 당신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Pierre Teilhard de Chardin, *The Divine Milieu*, P.145)

## 목 상 8 - 모든 것을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All for God's Greater Glory)

**주제 :** “하느님께 더 큰 영광“ 이라는 문구는 이냐시오의 삶에 원동력이었다. 그는 항상 ”조금 더“라는 목표로 최선을 다했다.

**시작 기도 :** 사랑이 가득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당신과 당신의 뜻보다 적은 것으로 결코 만족치 않는 성스러운 갈망을 내 가슴 안에 스며들게 해주소서.

### 이냐시오의 경우

팜플로나에서 당한 부상으로 요양하는 동안 이냐시오는 성인들의 전기를 읽었다. 그 중에서도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과 도미니코 성인의 전기를 읽고 특히 감동을 받았다. 이 성인들은 이냐시오 마음속에 소명감이 불붙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냐시오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값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해졌다. 하지만 하느님의 큰 영광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은 곧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살라망카에서 이냐시오는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규 종교교육을 받지 않은 이냐시오의 자격을 못마땅해하는 지역 교회 책임자들은 그분을 감옥에 넣고 심문하였다. 감금 당해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면회하러 왔다. 한 저명한 인사가 방문하여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었을 때 이냐시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오늘 감옥으로 저를 찾아와 동정어린 말을 들려준 어느 부인에게 제가 했던 그 이야기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부인에게서는 하느님 사랑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까지 할 생각은 없으신가 보군요. 옥에 갇히는 일이 부인에게는 것처럼 나쁜 일로 보입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살라망카에 제아무리 쇠창살과 쇠사슬이 많다고 해도 하느님 사랑 때문에 무엇이고 감수하겠다는 제 소망을 꺾지는 못할 것입니다. (Olin and O'Callaghan, *Autobiography*, P.70)

22일이 지난 후 이냐시오는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지정된 주제의 교리강의는 금지 받았다.

영혼을 돕는 일에 있어서 대죄와 소죄를 단정하지 말라고 금지당했으니 자기에게는 길이 막힌 것이나 다름 없다고 여겨져서 살라망카에 머물러 있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영혼들을 돕겠다. 그 목적을 위해서 먼저 공부를 할 것이며, 목적이 같은 동지들을 모으고, 이미 모인 동지들을 놓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파리에 가기로 결정 한 뒤 그는 일행들에게 자기가 먼저 떠나 일행이 공부할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다녀오는 동안 그곳에 남아서 기다리도록 타협을 했다. ……….바르셀로나에 당도하니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프랑스로 여행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이었다. 그곳에 큰 전쟁이 터졌다는 것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심지어는 그자들이 스페인 사람은 그을려 죽였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으나, 그는 결코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았다. (Olin and O'Callaghan, *Autobiography*, PP.70-71)

**머무름 :** 어느 성인 또는 성녀가 당신이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당신 능력의 한계를 뛰어 넘도록 고무시켰나?

## 이냐시오의 말씀

이냐시오의 끈질긴 열정은 하느님의 큰 영광을 찾아내는 길로 인도하였다. 그의 생애의 이 핵심적인 힘이 영신 수련 둘째 주간 시작 부분에 실려 있는 “그리스도 왕의 부름”에 잘 기술되어 있다. 이냐시오는 세상 통치자들의 사명을 반성하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 왕국을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첫째 요점:** 현세의 왕이 그의 부하들을 부를 때에 그들은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임금인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 사람들을 당신 앞에 두시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시면서 “나의 소원은 전세계와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내 성부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나와 같이 수고해야 한다. 즉 이 다음에 영광 중에 나를 따르기 위하여 어려운 때에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생각할 가치가 있는지 묵상해본다.

**둘째 요점:** 올바른 판단력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사업을 위하여 자기 전체를 바치겠다고 생각한다.

**셋째 요점.** 그중에도 특별히 감동되어서 우리의 주재자이신 영원하신 임금님을 섬기며, 특수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업을 위하여 자기 전체를 바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자기의 혈육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을 거슬러 더욱 고귀하고 더욱 가

치있는 봉헌을 하여 다음과 같이 아뢰다

### 만물의 영원하신 주님

만물의 영원하신 주님, 당신의 은혜와 도우심을 얻어 지신하신 당신 앞에서 영화로우신 당신 성모님과 천국의 모든 성인성녀들 앞에서 나를 바치며, 이로써 당신께 대한 더욱 큰 봉사와 찬미가 된다면, 또 만일 지존하신 당신께서 나를 이러한 생활과 직분에 선택하시고 받아주신다면, 모든 모욕과 업신여김과, 실제적 가난이건 정신적 가난이건, 모든 가난함을 감수함에 있어서, 당신을 본받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또 이것이 나의 자발적 결심임을 고백하나이다.(Tetlow, *Spiritual Exercises*, p.36)

## 성찰

어렸을 때, 이냐시오는 아버지와 큰형으로부터 조상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다. 조상들이 어떻게 군주에 충성을 다하였고, 그 대가로 어떻게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이냐시오는 회심 후 오직 한 분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것을 결심하였다. 사람인 지도자는 인간적인 결점을 가졌다. 그들은 욕심이 많거나, 방탕하거나, 잔인하거나, 연약하거나, 독단적이거나, 소견이 좁거나, 소심하거나, 무감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람인 지도자를 따른다. 이냐시오는 우리의 모든 헌신을 받을 자격이 있는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상기시켰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봉헌과 순종과 봉사와 제사를 받으실 수 있다. 오직 그분만이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고, 영원히 신뢰할 수 있고, 희망에 가장 좋은 근원이다. 영신수련하는데 이냐시오는 예수님의 봉사 생활 속으로 온 힘을 다해서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대하였다. 우리가 인간 지도자에게도 봉사를 잘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는 당연히 봉사해야 한다.

◆ 세상 지도자나 통치자를 따르는 모든 방법들을 나열한다. 당신이 순종하거나 봉사하는 지도자나 통치자의 이름을 나열한다. 각 지도자가 어느 정도의 존경과 대접과 경의를 받을 만 한지 표시하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고, 끝으로, 다음 질문을 생각한다. 나는 인간 지도자에게 더 순종했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더 따랐나?

◆ 천천히 “이냐시오의 말씀”을 다시 읽고 영신수련에 실려 있는 첫째, 둘째, 셋째를 다시 묵상한다. 셋째 내용을 기도한다: 각 구절을 묵상하면서 천천히 기도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당신에게 적용되는가?

◆ 이냐시오는 하느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자기 몸을 헌신하였다. 하느님 나라

가 오는 일이라면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였다. 삶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본다.

- ◇ 당신의 정력을 어디에 쏟고 있나? 무엇이 당신을 소모 시키고 있나?
- ◇ 그리스도의 부르심, 즉 복음과 연관하여 볼 때 무엇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고 무엇이 당신 생활의 목표로 되어있는가?

◆ 마치 신화에 나오는 남자 영웅이나 여자 영웅처럼 이냐시오도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쳤다. 자신에게 감명을 주었던 성인을 따라 이냐시아도 자신을 예수님께 봉헌하였다.

- ◇ 예수님의 어떤 부르심이 당신 내면에서 활동하고 있나?
- ◇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어떤 걸림돌들이 당신에게 고통으로 돌아오나?
- ◇ 당신 내면에 어떤 죄사슬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감정을 묶어 놓는가?
- ◇ 꿈에도 상상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신은 문화나 가정교육으로 제한된 전통을 벗어나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 ◇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이 살고, 너그럽게 사랑하고, 관대히 용서하고, 기쁘게 원수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또다시 “이냐시오의 말씀“에 있는 셋째 요점을 기도 한다.

## 하느님의 말씀

제자들과 군중과 한 자리에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벌어들인들 목숨을 해치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목숨 값으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마르코 8:34-37)

### 마침 기도 :

주님 당신께서 마땅히 받으실 봉사를 당신에게 바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주면서 썸하지 않게 하시고; 싸우며 상처를 걱정하지 않게 하고; 수고하며 쉴 것을 바라지 말며; 노동하며 보상을 바라지 말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만 알게 하소서. (“Obedience,” in George Appleton, ed., *The Oxford Book of Prayer*, P.86)

## 목 상 9 - 하느님 뜻의 식별

( Discerning God's Will )

**주제** : 언제나 보다 큰 민감성을 지니고, 이냐시오는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 즉 자신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움직임과 자신의 목표로부터 다른 길로 가도록 이끄는 움직임들을 식별하는 것을 배웠다.

**시작 기도** : 예수여, 저는 많은 이들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선행과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힘을 지닌 성령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으로부터 오며, 당신에게 돌아갈 성령을 주소서. 영원히 거룩하신 성령이여.

### 이냐시오의 경우

많은 이들이 성인의 지도를 청하는 편지를 썼다. 그 중에 테레사 레자델(Sister Teresa Rejadell) 수녀에게 보낸 편지가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귀중한 해설서로 제공된다. 테레사 수녀의 공동체는 변화의 과도기에서 긴장의 시기를 겪고 있었고, 깊게 불안한 수녀는 이냐시오의 지도를 간청하였다. 다음은 이 특별한 편지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1536년 6월 18일 베니스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끊임없이 보호하게 하소서.(p.18)…… 주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교훈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주시는 것과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말하는 주시는 것이란 내적 위로로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불안을 없애 버리고, 완전한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끌어들이는 내적인 위로입니다. …… 이 신적인 위로가 있을 때는 모든 시련도 즐거움으로, 온갖 권태도 정지 됩니다. ….. 이 위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열어주며, 또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을 지적해 줍니다. 그러나 이 위로가 없을 때는 두 번째 가르침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선조들의 원수인 어두움의 세력은 우리가 시작했던 길로부터 발길을 돌리도록 모든 가능한 장애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원수는 모든 것을 우리를 화나게 만들도록 이용합니다. 또한 첫 번째 가르침에서 말한 신적 위로 받은 것이 뒤바뀌어 지도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슬픈 우리 발견하게 되며, 애정어린 기도와 관상을 할 수 없게 되며, 외적인 경험과 의욕을 가지고 하느님에 대해 말하거나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만 아니라, 이런 해로운 생각 때문에 자신이 작아진 것을 원수가 알기만 하면, 원수는 우리가 우리 주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졌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아주 분리되었고, 우리들이 해 온 모든 것들과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도록 이끕니다. 원수는 이렇게 우리의 노력들을 실망하는 상태로 이끕니다. 우리는 무엇이 불안하게 하고, 나약하게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비참함을 깊이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원수가 잘못 이끄는 것에 쓰러지도록 놓아둡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의 반대자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로의 상태에 있을 때는, 자신을 낮추어 겸손해야 하며 곧 유혹의 시련이 올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유혹과 어둠, 슬픔이 올 때에는, 불쾌한 인상을 주는 것들에 관심을 주지 말며, 그 반대로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불안을 내어 던지고 먹구름을 흩어 버릴 수 있는 하느님의 위로를 인내롭게 희망해야 합니다.

끝으로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삼위께서 한 없는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Young, *Letters*, pp.21-24)

**머무름:** 최근에 두개의 반대 세력사이에서 내적으로 힘이 약해진 체험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이냐시오의 말씀

영신 수련에서 이냐시오는 선택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아래의 규칙은 둘째 방법이다.

**첫째 규칙 :** 나를 움직이고 또 이러한 것을 선택하게 하는 사랑은 위로부터 하느님의 사랑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즉 선택을 하는 이는 우선 그가 선택하는 대상에 대하여 다소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오로지 자기의 조물주 하느님을 위한 사랑임을 스스로 느껴야 한다.

**둘째 규칙 :**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을 눈앞에 두고서 그가 모든 완덕을 갖추기를 원하는 나는 그가 하느님의 큰 영광과 자기 영혼의 더욱 큰 완덕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선택하도록 권고하겠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나 자신에게도 같은 모양으로 적용하여 생각하고, 남에게 권고할 것을 나 자신이 실천한다.

**셋째 규칙 :** 내가 현재 죽는 순간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그때에 내가 지금 바로 이 선택에 대하여 취하였더라면 좋겠다고 생각될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지표로 삼아 모든 결정을 한다.

**넷째 규칙** : 심판 날에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를 상상하고, 그때에 내가 지금 이 선택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규칙을 따랐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될 것인지 생각하고, 그때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을 결정을 지금 한다.(Tetlow, *Spiritual Exercises*, pp.60-61)

## 성찰

이냐시오에게 “삶은 전쟁터이고, 그 보상은 굉장하다. ... 전투의 상은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이다.”(William A. Berry, “Ignatius of Loyola’s Discernment of Spirits,” *Human Development*, p.6)

우리 각자는 이 말에 동의 할 것이다. 우리들의 천막도 그 전쟁터에 세워졌다. 때때로, 우리는 매일의 겪는 느낌, 충동, 열망, 결정들을 정리하려고 노력할 때 혼란에 빠진다.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원하는가?”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실패하면 어찌지?” 우리를 무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내면의 대화로 망설이게 된다. 이런 질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소용돌이 친다.

테레사 수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냐시오는 우리와 그녀를 격려하며, 안에서 체험하는 충동들을 검토해 보기를 원했다. 그 충동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둠의 세력에서 온 것인지를 민감하게 대하기를 원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상기 시킨다. 우리가 완전하고 자유롭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움직임의 식별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가르친다.

이냐시오에게는 이 식별이 아주 중요했으므로 그의 동료들에게 매일의 의식 성찰을 하기를 주장했다. 일년에 한번의 피정, 하루 한번의 기도와 같이 식별은 매일의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영을 식별하려고 순간 순간마다 해야 한다.

◆ “이냐시오에 경우”내용 중 이냐시오가 테레사 수녀에게 보낸 편지를 다시 한번 읽는다. 중요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구절에서는 천천히 다시 읽어가면서 그 의미가 명확해 질 때까지 묵상을 한다.

◆ “이냐시오의 말씀”을 다시 읽는다. 그리고 다음의 질문들을 성찰해 본다.

◇ 이냐시오의 이런 규칙들이 지금 나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가?

◇ 이냐시오에 의해 발전된 이 규칙들의 방법으로 내가 중요한 결정을 식별한다면, 나의 삶이 보다 더 중심이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되는가?

◇ 나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영의 움직임을 식별하기 위해 영적 지도를 받는다면 도움이 될 것인가?

◆ 과거에 당신이 했던 세가지 중요한 선택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선택을 하게 했던 문제, 선택의 종류, 애쓰며 노력하는 과정들, 결정하기,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 영향들을 각 선택마다 기억해 본다. 당신 안에 있었던 영적인 움직임들의 방식이 무엇을 상기시키며 말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당신의 미래에 될 것인가?

◆ 이냐시오의 제안에 바탕을 둔 다음의 기도를 사용하면서, 매일의 의식성찰을 한다.

나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당신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주신 것이고, 당신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선물에 감사와 흠숭을 드립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머지않아 나에게 드러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장애물들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당신께 달려들 때 더욱 더 자각하게 해주소서. 오늘도 나의 삶에서 현존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가까이 있어 주소서.

- ◇ 오늘의 일들 안에서 현존하시는 분
- ◇ 오늘 내가 경험하는 느낌 안에서 현존하시는 분
- ◇ 나를 방문하시는 분
- ◇ 당신께 반응하는 나

하느님, 당신의 사랑어린 용서와 치유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장 치유되기를 바라는 특별한 경우는\_\_\_\_\_.

당신의 사랑과 능력에 굳건한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차, 당신의 보호에 나를 의탁합니다. 깊이 확신하면서\_\_\_\_\_ ( 하느님께서 그 선물을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가장 원하고 필요한 선물을 청하십시오.)

## 하느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하느님에게서 온 영인지 시험해 보시오,  
 사실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느님의 영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하느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예수에 관해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느님에게서 나온 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가 오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 그 사악한 영은)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 요한1서 4:1 ~ 3 )

**마침 기도 :**

예수님,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깊이 감추어진 나의 영혼을 날카로운 칼처럼 꿰뚫어주십시오. 나의 의식을 인도하기 위하여 당신의 깨끗한 당신의 빛을 주십시오. 소심한 마음에서 제가 분리되고, 극히 작은 것에서 별들까지, 우리의 육체에서 영적인 세계까지, 이 모든 것의 주님이신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저에게 기쁨이 되는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안에서 진정으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저의 원의와 존재의 목적도 알게 될 것입니다.(Prayer of Hugo Rahner, in Castle, *Christian Prayers*, p.40)

## 목 상 10 -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의 삶

(Living in God's Presence)

**주제 :** 이냐시오는 모든 창조물과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확인하였다.

**시작 기도 :** 자비로우신 하느님, 당신의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에게 당신의 현존이 스며들게 하소서. 당신의 자녀들의 가슴에 당신의 미소를 보내십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당신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소서.

### 이냐시오의 경우

아직 이냐시오가 만네사에 머물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던 카르도넬강 뚝에서의 체험을 갖게 되었다.

그가 신심으로 만네사에서 1마일 쯤 떨어진 성당으로 길을 나섰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성 바오로 성당이라고 했던 것 같다. 길은 강가를 뺨어 있었다. 길을 가다가 신심이 솟구쳐 그는 강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앉았다. 강은 저 아래로 흐르고 있었고, 거기 앉아있을 동안 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비록 환시를 보지는 않았으나 영신사정과 신앙 및 학식에 관한 여러 가지를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 만사가 그에게는 새로워 보일 만큼 강렬한 조명이 비쳐왔던 것이다. 비록 깨달은 바는 많았지만 오성에 더없이 선명한 무엇을 체험했다는 것 외에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그는 예순두 해의 전 생애를 두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와 그가 알고 있는 많은 사실들을 모은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그가 받은 것만큼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 했다.( Olin and O'Callaghan, *Autobiography*, pp.39-40)

**머무름 :** 전혀 뜻밖의 놀랍고 순수한 하느님의 현존의 선물을 경험 하였을 때를 기억해 본다.

### 이냐시오의 말씀

그의 여러 편지들 중 다음에 나오는 편지의 인용은 이냐시오의 깊은 하느님의 현존 경험의 좋은 예이다. 브렌다오(Brandao) 신부는 영적 생활과 예수회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수련에 대해 16개의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한 이냐시오의 대답은 :

연학이 끝난 후를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연학수사들은 자신들에게 길게 묵상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성숙을 위해 주어진 영신수련 이외에 - 매일의 미사, 한 시간의 염경 기도, 의식 성찰, 매주의 고백 성사와 성체 성사 - 무한히 선하신 그분의 현존과 능력과 본질로 모든 것 안에 계시기에, 그들은 모든 것 안에서, 그들의 대화에서, 산책하면서, 그들이 보고, 맛보고, 듣고, 이해하는 가운데, 그들의 활동 안에서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 하려는 이런 묵상은 관심을 계속 기울이는 노력을 요구하는 더 관념적인 신적인 진리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 보다 쉽습니다. 다소 짧은듯한 기도들이지만, 그러나 이 방법은 하느님의 큰 방문을 준비시켜주는 훌륭한 연습입니다. 이외에 연학수사들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맡겨졌던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의 공부와 거기에 따르는 수고를 우리 주님께 자주 바치십시오. (Young, *Letters*, p. 240)

## 성찰

이냐시오는 강가에서, 수업 중에, 전례를 하는 중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동안에, 대화하는 동안에, 식사하면서, -어디에서나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였다.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느낌은 그를 위로하는 힘을 돌아주었다. 단순한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의식은 두 친구사이의 침묵에서 경험하는 편안하고 관심어린 대화 같은 기도가 된다.

이냐시오의 민감한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정신은 예수회원인 제랄드 홉킨스 (Gerald Manley Hopkins) 의 시에서 볼 수 있다.

세상은 하느님의 위대함으로 차 있다.  
 은박지가 흔들림으로 반짝이듯이, 타오를 듯,  
 부어진 기름이 스며 나오듯, 커지심이 더해진다.  
 사람들은 왜 그의 자손을 개의치 않는가?  
 자손들이 짓밟고, 짓밟고, 짓밟고,  
 매매되고, 희미해지고, 고생으로 더럽혀져 모두 그을렸다.  
 사람의 더러움을 입고, 사람의 냄새를 나누며;  
 땅은 헐벗고, 걸음을 느낄 수 없다.  
 이렇지라도, 자연은 결코 지치지 않는다.  
 사물들 깊은 곳에 가장 소중한 신선함이 살아있다.  
 마지막 빛이 어두운 서쪽으로 꺼져 가지만,  
 오, 아침이면, 동쪽이 다갈색이 될 때 돌아난다-성령이 초월 위에 있기에,  
 세상은 따듯한 가슴과 오, 밝은 날개로 품는다.

("God's Grandeur," in Gerard Manley Hopkins,  
*Poems and prose of Gerard Manley Hopkins*, p.27)

그것을 보기만 한다면, 세상은 하느님의 위대함으로 차 있다.

◆ 강이나 냇가, 숲 기슭이나 별빛 하늘아래에서, 또는 마음에 드는 자연이 있는 곳에 가서 산책을 한다. 천천히 그곳에 가득찬 좋은 것들을 바라 보고, 만져 보며,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맛도 본다. 당신의 체험 속으로 들어 간다. 그리고 당신 영혼의 충동을 느낄 때, 창조주에게 응답한다.

◆ 넷째 주간의 영신수련에 이냐시오는 "하느님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으로 우리를 초대하며, 이 묵상의 단계들은 알기 쉽게 말한다. 시작하기 전에 긴장을 푼다.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하느님의 영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도록 한다.

◇ 하느님이 당신 안에, 주위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 하느님을 초대하여 대화한다.

◇ 창조물 안에 주신 모든 경이로움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빛을 주시기를 청한다.

◇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기억해 본다. 당신이 받은 모든 선물들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 이냐시오의 "나를 받으소서"라는 다음의 기도를 바치면서 하느님의 선물들에 감사 드리고 당신의 사랑을 표현한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력과

지력과 모든 의지와

내게 있는 것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소서.

당신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주여, 그 모든 것을 당신께 도로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오니,

온전히 당신 의향대로 그것들을 처리하소서.

내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이 내게 족하나이다.

(Tetlow, *Spiritual Exercises*, p.79)

◇ 하느님의 관대함으로 주신 선물들을: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축복 받은 행사들, 중요한 통찰력들, 광대한 자연의 광경들을 인식해 본다. 당신의 의식이 각 기억과 체험을 즐기도록 한다. "나를 받으소서"라는 기도로 응답한다.

◇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어린 하느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다. 하느님은 그토록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에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영

- 혼 안에 거주하신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 “나를 받으소서”로 기도 한다.
- ◇ 하느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한다. 하느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햇빛과 푸르게 하는 비처럼 우리 위에 쏟아진다. “나를 받으소서”의 기도를 바친다.
- ◇ 주의 기도를 천천히 하시면서 이 묵상을 끝낸다.

◆ 당신의 하루를 통하여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

## 하느님의 말씀

야훼, 우리의 주여!  
 주의 이름 온 세상에 어지 이리 크십니까  
 주의 영광 기리는 노래 하늘 높이 퍼집니다.  
 어린이, 첫머이들이 노래합니다.

---    ---    ---    ---    ---    ---    ---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피 주십니까?  
 그를 하느님 다음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은 온 세상에 어찌 이리 크십니까! (시편 8장)

### 마침 기도 :

얼룩진 일들에 대해 하느님께 영광, 눈물어린 소처럼, 한 쌍 색의 하늘을 향해서  
 헤엄치는 송어위에 두더지들이 점묘를 하듯;  
 새로 지핀 석탄불에 밤이 떨어지듯, 작은 새의 날개들이;  
 경치가 설계되고, 꿰뚫어지고, -흠이 싸여지고, 뭉히고, 일구어지고;  
 모든 손의 일들, 기계를 설치하고, 붙잡고, 손질한다.  
 모든 것이 거꾸로, 본래의, 여분이 있고 낮설다;  
 변하기 쉽고, 기미가 있는 무엇이든지(누가 어떻게 알까?)  
 날쌔면서 느리고; 달콤하면서 시고; 눈부시면서 희미한;  
 아름다움이 지나간 변화의 사람에게 그는 앞으로 책임을 지신다:  
 그분을 찬미하여라                    (“Pied Beauty,” in Hopkins, *Poems and Prose*, pp30-31)

## 목 상 11 - 사랑의 봉사

( Loving Service )

**주제 :** 이냐시오는 사랑어린 봉사의 한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체험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같이 이냐시오도 활동 속의 관상에 초대되었다.

**시작 기도 :** 자비로우신 하느님. 제가 입으로만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외적인 노력을 통하여 당신께 보여드리며 알게 할 수 있을까요? …… 제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낭비하지않고, 왜곡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으려고 많은 주의를 기울임으로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Chardin, *Divine Milieu*, p.79)

### 이냐시오의 경우

라 스토르타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동안 자신의 정체성과 예수님과의 일치감이 확실해졌다. 이와 동시에 봉사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냐시오의 첫 동료 중 한 사람인 디에고 라이네즈는 이렇게 설명 한다.

어깨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하느님이 이냐시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느님은 예수께 “이 사람을 너의 종으로 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돌아보며 이냐시오에게 “내 뜻은 네가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라는 대명사는 분명히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하느님은 친밀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이냐시오에게 일치의 신비 가운데 예수님 계시는 곳에서 그의 생애를 거룩한 봉사를 위하여 봉헌 하도록 초대 받았습니다. (Dalmases, *Ignatius of Loyola*, P. 153)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과 기질, 주입된 관상, 대학공부, 예수회를 창설하고 조직하는 경험들의 결과는, 관상적 고독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통한 봉사를 하도록 재촉하는 신비였다. 의지적인 하느님과의 일치는 사도적 활동을 강한 방침과 결합되어……。 이냐시오의 이상적인 사도적 영성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다. (Ganss, *Constitutions*, pp. 22-23)

알카라와 살라망카에서 이냐시오는 설교하며, 신앙을 전하며 병든 이들을 돌보았다. 파리에서 이냐시오는 자신이 구결한 과일들을 자기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베니스에서 그와 동료들은 자선 병원에서 노동하였다. 로마에 도착하였을 때, 이냐시오는 계속해

서 하느님의 사람들에게 봉사 하였다. 1538년에서 1539년의 기근 때, 그와 예수회는 몇 백명의 집 없는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하였다. 로마의 많은 창녀들을 재교육 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성녀 마르타의 집을 개설하였고, 착취당한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타 마리아 고아원을 설립하였다. 그동안 마을 전체에서 설교하며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신수련을 지도하였다.

**머무름 :**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당신의 봉사는 어떠한가?

## 이냐시오의 말씀

서품을 받은지 얼마 안되는 베드로 케니시어스(Peter Canisius)에게 보낸 이냐시오의 격려 편지:

공부를 하면서 어떤 성소에 불리워 졌는지를 숙고 하십시오. 주님이 당신께 주신 은총을 사용 하십시오... 결코 저항하지 마시오. 무한 하시고 영광된 이루 말 할 수 없이 선하신 하느님의 뜻에 의하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의지를 주시는 분도, 완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분도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 안에서 이해하면서 불굴의 정신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에는 당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은 영광 받으시고 보다 나은 삶을 희망하는 많은 영혼들을 안에서 열매 맺어질 것입니다. 속담에서처럼, 자발적으로 하려는 말에게 고무시켜 준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그밖에, 하느님의 포도밭에서 두려움 없는 활동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저를 커다란 희망이 생기도록 이끄시는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영원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Young, *Letters*, p.97)

## 성찰

비록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기도생활을 일치하는데 혼란스러워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정 있는 봉사를 하도록 불렀다. 우리들의 “존재”와 “활동”을 일치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도전이다. 이냐시오는 둘 중의 하나가 없으면 영성의 조화가 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도와 활동의 균형을 이루었다. 예수회의 총장이었던 페드로 아루페(Pedro Arrupe) 신부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봉사는 이냐시오의 카리스마인 주된 핵심이다. 이것은 이냐시오의 삶과 영성을 완성시켰

던 원동력이었다. - 신비적인 단계에서 조차도 - 완전한 실현: 조건이 없고, 무한한 봉사, 커다란 마음과 겸손한 봉사였다. 성인의 신비적 생활을 풍부하게 했던 삼위일체의 “빛” 조차도, 성인을 수동적이고 관상적 고요에 이끌기보다는, 큰 사랑과 흠숭으로 관상하였던 하느님께 큰 봉사를 하도록 재촉하였다. (*Challenge* p.254)

이냐시오는 우리를 활동 속의 관상으로 부르신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둘 때, 우리는 사랑하며, 창조적이고, 치유할 수 있는 봉사를 하도록 변화시킬 힘을 발견하게 된다.

◆ 지난 주간동안 당신의 삶의 리듬을 숙고해 본다. 지난 몇 일 동안의 활동-기도-활동의 순환을 돌아본다. 어떻게 당신의 활동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당신의 활동들이 어떻게 감동을 주고, 기도하도록 하였는지를 본다.?

◆ 기도와 봉사사이의 균형에 대한 질문들을 생각해 본다.

◇ 지속적이고, 훈련된 기도생활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믿음과 가치관을 전하게 하며, 당신의 모든 사건 안에서 이런 원칙들을 실천하게 하는지?

◇ 당신의 기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의지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 면에서 당신의 기도에 대해 만족하는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느끼는가?

◆ 이냐시오의 영성에서 헌신적 사랑이 봉사의 기초가 된다. 우리는 자기희생, 자비심, 동정심, 감수성, 사랑을 다른 사람들의 모범을 통해 배우게 된다. 당신의 삶 중에서 헌신적 사랑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해보며 당신 삶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느님께 감사 드린다.

◆ 오늘 특별한 관심과 세심한 친절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일하도록 한다.

하루 중 여러번, 잠깐 머물면서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본다.

◇ 하느님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나의 봉사 자체는 어떠하였는지?

◇ 나의 일 중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하였는지?

◇ 어떻게 하면 나의 일과 일을 하는 방법이 봉사를 통하여 기도화 할 수 있을까?

◆ 당신의 봉사적 삶에 대해 예수님과 대화 한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아량있고 온정있는 봉사를 위해 필요한 은총을 간구한다.

◆ 오늘, 여러분이 대하게 되는 어려운 사람에게 특별히 친절하도록 한다.

## 하느님의 말씀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정의의 임금 앞에 왔을 때, 그들에게 영광으로 초대 하시는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가 되었을 때 맞아들였다.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러면 의인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저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해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해 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맞아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혀 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이 병들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진실히 말하거니와, 너희가 나의 형제 자매들인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 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오 25:31-40, 에서 인용)

### 마침 기도 :

저의 깊은 속에서, 당신의 신음하시듯 괴로워 하시는 목소리, 사랑하는 하느님,  
당신을 저에게 풍부히 부어주시길 청합니다.  
메마른 땅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비와 같이,  
메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는 생명의 숨결같이,  
모든 것에 음미할 수 있고, 영감을 주고, 깨우침을 주는 성령을,  
스스로는 지탱할 수 없기에, 저를 지탱시킬 힘이 될 수 있는 성령을 주소서  
나약한 갈릴레아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형제들을 위한 사랑의 최고의 증인으로서  
자신들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놓은 사도들로 변화시키셨던 그 성령을 저희에게 주소서.  
(Arrupe, *Challenge*, pp.296-297)

## 목 상 12 - 교회를 향한 사랑

(Love for the Church)

**주제 :** 이냐시오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깊이 사랑했고 이해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의 약점도 물론 알았지만 열심히 복음 정신을 바탕으로 교회의 쇠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에 충직하고 진실한 신자로 남았다.

**시작 기도 :**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그 교회의 가슴 안에 놓아주시고 교회의 지향에 충실하게 하소서.

### 이냐시오의 경우

라 스토라토 에서 환상 속에 잠겼을 때 이냐시오는 “나는 로마에서 너에게 자비를 주겠다” 라는 말을 들었다.(Dunphy, *Placed with Jesus*, P.385).

이 말은 지상의 예수님 대리자이신 로마 교황에 의해 확인된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의 봉사 라는 것에 교회 차원에서 명시되어 있다. 이냐시오와 그의 동료들이 가기를 원했던 예루살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시고 고난 받으셨던 바로 그 동네와 마을 안에서 영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려고 하였던... 그 예루살렘이, 로마 라 스토르타에서 실현되었다. 1년 후, 1538년 11월 동료들은 교황께 자신들을 바치고 얼마 후 그들은 종교 단체로 “예수회”로서 등록하였다. 이 단체는 “첫째 원칙이며 가장 근본 설립 목적” (Dunphy, *Placed with Jesus*, pp.585-386)으로 예수 대리자에게 순명 할 것을 약속하고 서약했다.

이냐시오의 비서인 폴랑코가 초기 동료들에 대해 언급했던 대로 “동료들은 그분 대리자의 중재를 통해 커다란 봉사의 길을 기꺼이 동료들에게 보여 주신 예수님 자신이라고 확신하였다.” (Dunphy, *Placed with Jesus*, P.329).

**머무름 :** 당신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해 보십시오.

### 이냐시오의 말씀

제도화한 교회가 성서에 입각한 이상적인 교회로부터 멀어질 때 이냐시오는 자모이신 교회를 깊은 사랑으로 소중히 여겼다. 이러한 것은 16세기의 혼동과 소란의 결과며 인간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었다.

이냐시오는 교회가 변화와 재건의 시기에 균형을 유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갖도록 18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혼탁한 교회 내에서 우리가 마땅히 수행할 진정한 책임" 를 현대 말로 쉽게 설명하였고 이것은 영구히 가치 있는 말로 남게 되었다.

1. 교회 안에서 합법적인 책임자가 말할 때 도와 주려는 의도로 경청해야 하고 헐뜯고 비난하기보다 협조하는 방향으로 격려해야 한다.
9. 교회 안의 법과 지침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삶을 돕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법을 존중해야 하고 옳은 질서를 위해 온 마음으로 응답해야 한다.
10. 지도자들의 개인적행위나 그들의 공적생활 속에서 단점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도와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단지 우리들 사이에 큰 불만과 불화는 대중의 비난이나 지위의 명예훼손 때문이다. 잘못 된 것, 해로운 것, 불공평한 것, 창피한 일들을 적절히 시정하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뢰하고 설명을 드려야 한다.
14.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적절히 설명한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하느님이 인류를 구원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계시된 일이다. 또한 사람들이 하느님을 부인할 자유를 갖고 있는 것도 명백한 일이다. 우리가 생각이나 말에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이 두 가지 핵심 되는 사상 중에 어느것도 부인하지 않는 것이다.
18.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이 되도록 사랑의 동기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죄책감에 가치를 망각한다. 그 죄책감이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것 또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부모님께 반항하는 자식으로서의 죄책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삶의 실생활 속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여러 자극을 주는 요소를 이해하고 사용해야 된다 (Fleming, *Spiritual Exercises*, pp.230-237)

## 성찰

오늘날, 이냐시오의 시대와 같이, 교회는 고통과 권위로 영긴 거미줄같이 보일 때가 있다. 아마도 교회의 거룩한 사명의 증거는 교회 구성원들의 인간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현존하는 것이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국가의 등불이고 진리의 전달자이고 희망과 일치 의 상징이다. 예수회원인 신학자 칼 라너는 이냐시오가 현대의 교회를 그분의 동료들에게 어떻게 말했을까 하고 상상하였다. 이냐시오 목소리를 상상하면서, 칼 라너는 말했다:

나는 역사 속에서 하느님이 당신의 사랑을 자기 아들의 육체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교회를 사랑했다. 교회와 하느님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하느님과의 신비적 일치 안에서, 교회 자체는 하느님이시고 또한 하느님께 가는 길로 남아 있다. 그리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영원한 신비와 관계되는 문제이다....

교회 내에서 신자들과 교회 임원들간에 신념이나 결론들이 마찰 없이 자동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교회는 무한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영의 교회다. 교회의 완전한 일치는 이 세상의 많은 다른 면을 통해서 반영된다. 교회의 최후의 완전한 일치는 하느님이시다...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Ignatius, pp.27-28)

교회 내의 마찰과 다툼이 있을지라도 하느님의 뜻과 자비 하심에 의뢰하는 일은 꼭 남아 있어야 한다.

◆ 교회는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필요로 한다. 교회의 잘못된 역사를 회고한 예수회 신부이며 이냐시오의 영성적 아들인 헨리 디 루백신부는 “어떻게 이 교회를 둘러싸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이냐시오의 대답은 ”교회는 나의 어머니 시다“ 라고 대답하였다. ("Meditation on the Church," in John H. Miller, ed., *VaticanII: An Interfaith Appraisal*, p.260)

- ◇ 당신 경험으로 교회가 죄를 지은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 ◇ 루백신부의 응답을 어떻게 느끼나? 당신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할 수 있나?

◆ 다음 질문들을 숙고하여 보라.

- ◇ 어떻게 교회가 국가들에게 빛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까?
- ◇ 어디에 진리의 전달자인 교회가 있나?
- ◇ 교회는 희망과 일치의 상징인가?
- ◇ 어떤 면에서 교회가 인간의 육체적, 지적, 심리적 필요에 봉사자인가?

◆ 당신의 이상적 교회 상은 무엇인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숭선하겠는가?

◆ 교회에 대해 전혀 생소한 사람에게 교회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해 보라. 교회에 대해 어떤면을 강조하겠는가?

◆ 당신과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화해해야 할 일이나 교회의 쇄신을 위해 꼭 수행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 기도문을 써 보라..

## 주님의 말씀

예수께서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시자 제자들이 말씀드렸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 하는데,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

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복되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셨으니 나 또한 말하거니와,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저승 문들도 내리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 나라 열쇠를 주겠습니다. 그대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그대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입니다.” (Matthew 16:13-19)

**마침 기도:**

사랑 많으신 주님, 온갖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교회가 인내와 사랑으로 교회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오는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느님의 현의가 완전히 밝게 나타날 때까지 당신의 교회가 세상에서 성실히 그러나 은밀히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게 하소서. (Adapted from "Lumen Gentium," in Austin P. Flannery, ed., *Documents of Vatican II*, p.358)

## 목 상 13 -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Sustained by the Bread of Life)

**주제 :** 이냐시오는 그의 미리 정해진 활발했던 봉사직 기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힘을 성체성사로부터 얻었다.

**시작 기도 :** 은총의 하느님, 당신은 성체성사를 통해 당신의 아들, 생명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매일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에 대한 감사를 더욱 더 깊게 하여 주소서. 이냐시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것에 대한 양식이 되게 하소서.

### 이냐시오의 경우

이냐시오는 그의 자서전에서 만레사에서 가졌던 성체 성사의 체험을 기술했다.

어느 날 수도원 성당에서 미사에 참례하고 있는데 거양성체 때 새하얀 광선 같은 것이 위에서 내려옴을 심안으로 보았다. 먼 훗날에 와서도 그는 이 일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거룩한 그 성사에 어떻게 현존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그는 심안으로 분명히 보았던 것이다. (Olin and O'Callaghan, *Autobiography*, p. 38).

그의 자서전 집필자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주를 달았다.

매일 매일의 미사는 그날 하루 내내 새겨진 은총의 중심으로 명백히 자리 잡아갔다. 성찬식에 대한 그의 마음, 기도 그리고 내적 준비 속에 미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깨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제대와 제의를 준비하고, 미사 시작 부분과 다른 부분 그리고 그의 감사기도, 이런 부분 순간들은 그가 기록하고 있는 좋아하는 것의 대부분에 연관되어 있다. 하루를 지나면서 받아들인 것들도 아침에 일어났던 것의 연장 혹은 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 같다. (De Guibert, *Jesuits*, p. 53)

**머무름 :** 가장 최근의 영성체를 돌이켜 보시오. 당신의 일상생활에 어떤 선물이었는가?

## 이냐시오의 말씀

그의 영적일기에서 이냐시오는 자주 성찬식 집행에 수반되는 특별한 은총의 주입에 비교하곤 했다. 다음부분은 공동체를 위해 가난에 대해 그가 했던 식별에 관한 것이다.

제대를 준비하는 동안 예수님 생각이 일어나면서 잠시 그를 따르는 움직임이 느껴졌다. ……나는 이들 생각을 따라 갔으며 제의를 입는 동안 생각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현존이 어느 면으로 천주 성삼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록 그 때 아무 위안을 받지 못했지만 이들 생각들을 “확인”으로 받아 들였다. 나는 성부께서 나를 성자와 함께 서 있게 하신 그 날을 회상했다. 미래를 위한 확인을 생각하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각인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제의 입는 것을 끝냈을 때, 새로이 북받치는 눈물이 나에게 찾아왔다. 미사가 시작됨에 따라 나는 더 많은 은총과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대부분 잔잔한 눈물로 덮여졌다. 미사가 끝을 낸 후에도 큰 헌신적인 마음과 눈물이 내려는 상태가 내가 제의를 벗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미사를 지내는 동안, 나는 내가 말한 것의 확인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두 손에 축성된 성체를 들어 올릴 때에, 하늘과 땅 등,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분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강한 내부의 진동과 더불어 나에게 왔다. 그때 나는 헌신적 사랑에 대한 신선한 동기와 영적 기쁨을 느꼈다. 나머지 시간에,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기억한 것처럼 나는 특정한 느낌 또는 이해를 통해 또 계속적이고 확신이 가는 헌신을 가지고 보았다. (Young, *Spiritual Journal*, pp. 15-16)

## 목 상

이냐시오의 눈물은 그의 내면에 자리한 헌신적 사랑의 강함이 외부로 나타내지는 표지이었으며 그의 일상 생활 중 그를 위해 마련된 성체성사의 중심 장소이었다.

그의 예는 우리들을 성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해와 헌신적 사랑에 대해 반성하라고 초대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자비의 성사요, 일치의 표징이요, 사랑의 맺음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게 하여, 마음을 은총으로 충만케 하고, 우리에게 미래 영광의 보증을 주는 빠스카 잔치이다. (Flannery, *Documents*, p. 16)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인용된 구절에 대해 숙고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에 기술된 질문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 ◇ 당신에게 성체성사는 사랑의 성사인가?
- ◇ 성체성사가 나의 가족, 친구들, 지역 공동체, 본당 그리고 온 세상과 일치하려는 나의 서약이 되어가는가?
- ◇ 성체를 나누어 영할 때 나는 내 자신을 사랑의 계약에 맡기는가?

성체성사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한다.

◆ 첫 영성체를 기억 해 본다. 아주 자세히 회상한다. 당신이 했던 준비, 어떠한 날이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는데, 미사는 어땠는지, 당신의 느낌과 기도는, 그리고 뒤따른 축하는, 등등.

◆ 다음번에 성체를 영할 때, 이냐시오가 예수님에 대해 또는 예수님께 말할 때 그가 기록에 사용한 이름과 칭호들의 일부분으로 구성된 다음의 호칭 기도를 드린다.

- 동정녀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
- 모든 만물의 영원하신 주님이신 예수님.
-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 속죄하신 예수님.
- 영원하신 심판관이신 예수님.
- 신성한 임금님이신 예수님.
- 완전하신 선 자체이신 예수님.
-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
- 우리의 친절하신 주 예수님.
- 무한한 지혜이신 예수님.
- 모든 축복의 근원이며 만드시는 예수님.
-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선이신 예수님.
-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 우리를 도와주고 지탱하시는 예수님.
-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님.
- 하느님의 능력이신 예수님.
- 우리의 최고 지도자이신 주, 예수님.
- 순례 길에 양식이시며 동반자이신 예수님.
-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예수님.
- 가난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

- 우리의 위로자이신 예수님.
-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님.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지극히 위대하신 우리의 상급이신 예수님.  
 세상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본보기이며 인도자이신 예수님.  
 당신의 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당신의 배필,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님.

.....

예수님, 당신의 성부께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 안에 희망의 닷을 놓았습니다.

.....

예수님, 지극하신 성삼의 뜻에 순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지극하신 성삼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축복 받으소서. 아멘.

*(Ever to Love and to Serve:*

*Prayer Services on Ignatian Themes, pp. 1-2)*

## 하느님의 말씀

정말 잘 들어 두어라.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너희를 먹인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진정한 빵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 오는 것이며  
 세상에 생명을 준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입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32-35에서 인용)

**마침 기도:**

하느님, 제가 성체를 영 하려고 제대에 가까이 갈 때마다,  
당신께서 봉헌되어진 성체의 작고 가깝게 여겨지는 그것 속에  
감추어진 무한함을 식별할 수 있게 하소서.  
저는 정제된 빵 조각 속에,  
당신의 교회의 가장 위대한 의사의 말처럼,  
제가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저를 집어 삼키는  
거대한 힘을 보는 데 제 스스로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당신의 어루만짐이 일정한 한계가 있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저의 환상에서 깨어나 벗어 날수 있는 힘을 주소서. (Chardin, *Divine Milieu*, p. 126)

## 목 상 14 - 마리아, 우리의 어머니

( Mary, Our Mother )

주 제 : 일찍부터 이냐시오는 성모님의 현존에 대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저술들은 마리아가 그를 성삼위를 현존 앞으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시작 기도 :

……. 하느님,

당신은 동정 마리아께

당신 아들의 수난과

그의 부활의 영광안에 있도록

몹을 나누어 주셨나이다.

저희의 눈이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시어

그리하여 저희가 지상에 ‘하느님의 주권’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영원한 삶에 들어가,

마리아, 우리의 어머니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저희는 이 기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Prayer over the Gifts,” in *Supplement to the Missal and Lectionary for the Society of Jesus*, p.15)

### 이냐시오의 경우

이냐시오가 청년이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할 수 있는 귀부인이 있었으면 하고 공상하였다.

문득 떠오르는 많은 상념들 가운데 특별히 그를 사로잡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생각만 떠오르면 그는 자기도 모르게 두서너 시간씩 공상에 빠져드는 것이었다. 어느 귀부인에게 봉사하는 일을 머리 속에 상상하는 것인데, 그 귀부인이 사는 나라까지 가는 방법이며, 귀부인에게 건넬 말과 찬사의 구절들이며, 그녀를 받들어 쌓아올릴 무훈 따위를 공상 해 보는 것이었다. 그는 그 생각에 하도 열렬히 사로잡혀서, 그 귀부인이 낮은 귀족도 아니고 백작부인이나 공작부인도 아니며 그보다 훨씬 높은 신분에 있는 몸으로 자기로서는 그 일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미처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도와주시어 그 같은 생각에 연이어서 그가 읽은 것에서 다른 생각이

떠오르게 해주시었다……

그가 이 경건한 소망에 젖어들면서 과거의 생각은 잊혀지기 시작했으며, 이 열망은 어떤 현시로 더욱 굳건해졌다. 어느 날 밤, 깨어있는데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계신 성모님의 모습을 뚜렷이 보았다. (Olin and O'Callaghan, *Autobiography*, pp.23-24)

그의 성모님 현시의 빛으로, 이냐시오는 성모의 성지들을 순례하였다. 그는 성모께 대한 기도를 바치는데 정성을 다하였다. 몬세라트에서, 성모 수태 기념일에 그는 그의 장검과 단검을 마리아의 발 아래 내어 맡겼다. 몸바쳐 봉사할 부인을 꿈꾸던 이냐시오는, 성모 안에서 그의 생에 걸쳐 그가 받을 은총들의 문이 될 부인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신을 준비하고 성모께서 '자기를 성자와 한자리에 있게' 해주시기를 청하였다. (Olin and O'Callaghan, *Autobiography*, p.89)

**머무름** : 당신이 가장 즐겨보는 성모님의 초상이나 이미지를 생각해 본다.

## 이냐시오의 말씀

그의 영적일기에서, 이냐시오는 성모님을 자주 언급하면서, 성모님과의 강하면서도 온유한 관계와 그녀의 실재가 커다란 선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있다. 그는 1544년 2월 15일 이렇게 적고 있다.

나중에, 미사를 드리기 전 기도를 시작했을 때, 나는 성모님 같은 형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 전날의 내 잘못이 얼마나 컸는가를 깨닫고 대단한 내적 감동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하기를, 복된 동정녀께서 나의 수많은 실패 이후에도 내게 그렇게 많이 요청하며 모욕을 겪으셨던 것과 너무나 그렇게 모욕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후께서 내게로부터 자신을 감추셨고,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서나 위로부터 오는 믿음의 위로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우리의 모후를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나는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구했고, 거기 따라 커다란 눈물과 흐느낌의 감동이 왔다. 그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당신자신의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보증이었으며, 너무나 큰 그분의 호의를 통해 내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후를 통해서 당신께 청원 드리는 것이 당신께 기쁜 일이 되리라는 표징을 주셨다.

제단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제의를 입은 후, 또한 미사 중에 매우 강렬한 내적 감동과 수시로 말을 중단함과 함께 여러 번의 눈물흘림과 흐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미사를 마친 이후와 미사 중 오랜 시간동안과 미사준비의 전후에 아버지전에서 매우 호의로운 모습으로 계신 우리 모후의 선명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은 너무

나 선명해서 아버지께 대한, 그리고 아드님께 대한 기도 중에, 또한 축성때에 나는 내 영혼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은총 가운데 마치 모후께서 한 부분이시거나 출입문이신 것처럼 내가 글로 쓸 수 없을 정도의 큰 빛과 함께 보여주셨다.(Young, *Spiritual Journal*, p.7)

## 성 찰

역사를 통해서, 성모의 신심은 교회안에서의 거칠거나 엄격한, 또는 퇴폐적인 시대에 대한 치료법으로 베풀어져왔다. 1950년, 심리학자 칼 융은 마리아의 몽소승천에 관한 교리선포를 환영하였다. 몇번의 기회에 걸쳐서 융은 우리 시대의 물질주의에 대한 해독제로서 영혼뿐 아니라 육신이 하늘에 들어올려진 여인의 표징을 필요로 한다고 공공연히 선언하였다.( Carl G. Jung, *Four Archetypes: Mother, Rebirth, Spirit, Trickster*, pp. 41-43)

성모님에 대한 진실한 신심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에 강력한 전환을 일으켜 왔다. 영적 여정에서, 성모님은 충만한 인간성의 모범이 되신다. 그분은 힘있고 부드러우며, 도전하는 동시에 양육하고, 활동적이며 동시에 관상적이다. 그분은 어머니가 되어 사는 일을 용기있게 받아들이셨다. 그분은 예수의 사도들이 부인하는 동안 십자가의 발치에 계셨다. 하느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되는 한편 온전히 인간이 되도록 부르신다. 그리고 성모님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고 완전한 인간성을 입도록 초대하신다. 이냐시오의 영성은 우리의 인간성 전체를 성모님이 그리하셨듯이 하느님의 통치를 위한 헌신에 사용하도록 봉헌하고 그분의 사랑어린 중재에 의존하도록 촉구한다.

◆ 천사의 예고 때 마리아는 하느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었고 하느님의 뜻에 항복하였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어 우리 또한 하느님의 선 하심에 의지하도록, 사랑과 평화,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며 하느님의 뜻에 항복하게 하신다.

◇ 당신 삶의 어느 영역에서 당신은 하느님의 선 하심에 대하여 더욱 완전히 신뢰할 필요가 있는가?

◇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당신은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며 정의롭게 행동하기 위해 더 많은 용기를 가져야 하는가?

◇ 당신이 포기하고 하느님의 돌보심에 맡기도록 하느님의 뜻에 항복해야 하는 삶의 국면들은 어느 것인가?

당신의 일기장이나 다른 종이 위에 각 질문들에 대하여 마리아께 의논 드려라. 한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담화의 순서로 한다. 예를 들면,

당신 자신: 복되신 어머니, 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 : ( 당신에게 주는 그분의 응답 )

◆ 영신수련에서, 이냐시오는 기도의 세가지 방법을 묘사했다. 세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주님의 기도’나 다른 기도문을 한 마디씩 묵상하는 것인데, 즉 숨과 숨 사이에 한 마디씩을 묵상하게 된다. 그리고 숨과 숨 사이에 생각할 것은, 그 말의 뜻이나 그 말을 누구에게 드리는가 하는 대상에만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기도문의 나머지 단어들을 기도해 간다.(Tetlow, *Spiritual Exercises*, p.84)

이냐시오의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여 성모송을 기도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 자신을 십자가 받치에 서있는 요한이라고 그려본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쳐다보라. 그분은 성모님과 당신을 보고 말씀하신다. “여인이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아들아) 이분이 네 어머니이시다”(요한 19:26 ~ 27). 그 자리에 서서, 당신은 다음의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들을 성찰해 본다:

- ◇ 어머니를 당신의 집에 어떻게 모실 것인가?
  - ◇ 어머니를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기쁘게 맞아들일 것인가?
- 이 질문들을 묵상한 다음 성모님께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씀 드린다.

◆ 각 단어, 문장 그리고 이미지들을 맛보면서 제랄드 홉킨스가 쓴 다음의 시 “우리가 숨 쉬는 공기에 비교하올 복되신 동정녀”를 마리아께 소리내어 읽어드린다.

자연의 대기, 세상을 키우는 공기여,  
어디에서든 나를 안아주시니,  
눈썹하나, 머리카락 한 올마다  
감돌며 그 사이로 돌아가는  
양털처럼 부드럽고 가장 연약한  
눈송이; 그것은 수수께끼와 섞여서  
모든 가장 미소한 것들의 생명 안에 넘치네;  
긴요하며 항상 샘솟는,

그리고 양육의 성분인 이것은;  
내게 고기와 음료보다 더욱 귀한  
눈 깜박이는 매 순간마다의 양식이네;  
생명의 법에 따라 이 공기를  
내 가슴이 빨아들이고 숨쉬니  
지금 오직 그것의 찬미를 숨쉬기 위함이라  
이 여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내게 생각을 키우는 것은  
어린아기로 작아진  
무한하신 하느님을  
자궁과 가슴으로 안아 들며  
낳고, 젖먹이고, 그 밖의 모든 것을 베푸셨을 뿐 아니라  
어머니들 각자에게 새로운 은총을 주시어  
이제 우리 민족에게까지 이르셨네-----  
티없으신 마리아  
단지 여인이면서도 또한  
그 존재와 능력이  
그 어떤 여신도 생각하고, 꿈꾸지 못했을 만큼 크시오니  
이 한가지 일로 가능 했어라  
모든 하느님의 영광을 통하게 하여-----  
하느님의 영광이 이 여인을 통해  
그리고 그녀로부터 흘러나오고 마치나니  
다른 길은 없고 오직 그 한 길 뿐이라.  
(In *Poems and Prose*, pp.54-55)

◆ 성모님께 당신의 애창 성가를 불러드린다.

## 하느님의 말씀

그 즈음에 마리아가 길을 떠나 유다 산골 고을로 서둘러 갔는데, 즈가리야의 집에 들어서며 엘리자벳에게 인사하니 엘리자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듣는 순간 태중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자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쳤다. “여자들 가운데 복되시며 태중의 아기 또한 복되시도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오시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보십시오, 인사하시는 소리가 귀에 들리자 태중에서 아기가 신명이 나서 뛰놀았습니다. 복되도다, 믿으신 분, 주님이 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니!” (루가 1:39 ~ 45)

**마침 기도** : 마리아님, 예수의 어머니, 저를 당신의 아드님과 함께 자리하게 해주소서.

## 목 상 15 - 삼위 일체의 하느님

(The Triune God)

**주제** : 이냐시오는 성삼위께 극진한 신심을 가졌다. 그는 매일 성삼의 각 위께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모든 것이 커다란 신비들인 이 삼위일체에 관하여 그는 기술했다.

**시작기도** : 제 삶 속에 거룩하신 하느님, 당신의 한줄기 빛 속에서 당신 안의 성삼위를 찬미할 수 있게 하소서 (“Te Deum,” in Gertude von Le Fort, *Hymns to the Church*, p.51)

### 이냐시오의 경우

세 가지 흡이나 키(key)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한가지 화음을 만든다. 이냐시오는 성삼위에게 그의 신심을 온전히 바치는 은총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냐시오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께 극진한 신심을 가졌고, 매일 성삼의 각위께 기도를 바쳤다. 그런데 성삼위께 기도를 드릴 때면 무엇 때문에 성삼위께 네 차례의 기도를 올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하였다. 하지만 이 생각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서 그다지 곤란을 느끼지는 않았다. 하루는 수도원 층계에 앉아 성모의 성무일도를 염하고 있노라니 그의 오성이 승화되더니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가 세개의 현(弦)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끝내는 흐느끼며 자제를 잃고 말았다. 그날 아침에 그 층계 위에서 시작된 이 감격은 점심때가 되도록 눈물을 거두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 점심을 먹은 후, 그는 크나큰 희열과 위안을 느끼며 여러 가지 다른 비유를 들어가면서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께 기도하던 때에 커다란 경건심을 체험했던 그 인상은 평생을 두고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Olin and O’Callaghan, *Autobiography*, pp.37-38)

**머무름** : 천천히 십자 성호를 긋고, 머무르면서 각 위의 이름으로 당신의 기도를 한다.

## 이냐시오의 말씀

이냐시오의 영적일기는 성삼위와 상상이 함께하며 하느님, 예수 그리고 성령에 대한 기도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있다. 사순절이 시작되던, 1544년 2월 27일 수요일에 이냐시오가 쓴 것으로:

나는 방안에서 준비하며, 예수께 여쭙어 보았다. 확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고하신 성삼위의 현존 속에서 그리고 내가 그분의 은총 안에 있다면 가장 거룩한 예식을 내게 행하여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이 안에서 나는 어떤 빛과 힘을 받았으며, 성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힘 위에서 지고하신 성삼위 일체와 예수님을 느꼈고, 보았는데, 그분들은 내게 은총을 주시고, 혹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혹은 이러한 영적 관상이 내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지고한 성삼위의 한 가운데서 스스로 결합의 도구들이 되시기로 하였다. 이러한 지식과 시각을 가지게 되면서 나는 눈물과 사랑으로 주체할 수 없었으며 예수님과 지고하신 성삼위에게로 세상 무엇보다도 존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존경이 가득한 경배를 드리게 되었다.

나중에 나는 성부께 기도를 드리는 생각 중에서 동일한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생각 하였나 내적으로는 그분께서 성부와 지고하신 성삼위와 함께 모든 일을 행하시고 있음을 생각하고 느끼면서 나는 많은 눈물과 지극한 봉헌과 내내 흐르는 눈물 속에서 미사를 시작하였다. 게다가 나는 이전처럼 지고의 성삼위의 동일한 관상을 분명하게 보았다. 신성하신 하느님의 한 없는 사랑과 함께 그리고 여러 차례 말 할 힘을 잃었다.

(Young, *Spiritual Journal*, p. 19)

## 성 찰

그는 성삼위의 신비속으로 몰입하였고, 이냐시오는 존엄하신 하느님 앞에서의 눈물에서 흠숭으로 움직여 나아갔다.

삼위일체를 믿는 공동체………는 성스러운 각 위의 열린 사랑에 의해 구성되었고, 각 위격은 성스러운 사랑의 본래의 모습인 완전한 자기봉헌과 절대적인 열린 마음 속에서 오직 다른 것들을 위해 존재한다. 각 위격은 그들의 본질인 일치,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않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받은 것까지도 주어지고, 서로의 사랑과 일치의 신비가 형성된다. 이 서로 서로의 사랑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공동으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그들은 각각 본래 단순한 한분(One)에

의한 성스러운 삶이 된다. (as Pedro Arrupe said in *The Trinitarian Inspiration of the Ignatius Charism*.) . . . 삼위는 동일한 하느님 안에서 실재하시므로 세 분 안에서 한 분을 찾으려는 것은 세 분 안에서의 찾으려는 삶보다 낫지 않다. 삼위 안에서, 오직 그 안에서의 유일한 사랑이 유일한 본질이다. (Dunphy, *Placed with Jesus*, p. 378)

성삼위 세 위격사이에 흐르는 황홀함은 공동체를 위한 사랑과 교회 안에서의 봉사에서 이냐시오를 위한 은총과 모범이었다. 이 삼위일체 신봉자의 사랑은 하느님을 위한 우리들의 사랑과 봉사에 있어서 각자에게 모범이 된다.

◆ 다음 질문들을 묵상한다.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 되면 당신의 성찰들을 적도록 한다.

- ◇ 어떤 행위로 창조주가 당신을 부르는가? 하느님의 왕국을 위해 당신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 ◇ 당신은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당신의 형제 자매에게 하느님의 얼굴을 보일 수 있는가?
- ◇ 당신은 성령께 마음을 열어 놓았는가? 지혜와 불의 성령이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과 결정하는데 도와 주시길 청하는가?
- ◇ 당신은 어떻게 성삼위 안의 사랑의 이미지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

◆ 마가렛 크리서로(Margaret Clitheroe)는 카톨릭 활동이 금지되었던 1586년 영국의 요크(York)에서 처형 되었다. 제랄드 홉킨스의 시에는 그녀에 대한 존경이 담겨져 있는데, 독특하지만 이냐시오적인 방법으로 성삼위의 자비를 구했다. 이 시의 구절을 읽고, 성삼위의 이미지를 숙고해 본다.

그리스도 같은 아름다운 그녀의 마음  
그녀 미래의 모습들은 잘 맞아 떨어지고.

.....  
그녀는 바르고, 분명한, 여인이 였고;  
그녀의 뜻은 하느님께 기울어 지는 것 . . . .

.....  
그녀는 그 삼위의 울음을 간직하고,  
불멸의 영원한 울림,  
완전한, 완전했고, 완전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증거자 였다.

(“Margaret Clithroe,” in *Poems and Prose*, pp. 78-79)

당신은 어떻게 삶을 잡고 증거하며, 그리고 사랑이며, 사랑이셨고, 사랑하실 우리의 삼위일체 하느님을 반영할 수 있는가?

◆ 삼위일체의 영광 속에서, 오늘 다른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관대하게 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 속에서 공동체를 건설한다.

◆ 당신과 다른 이들 그리고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

## 하느님의 말씀

예수께서 다가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그대들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키도록 가르치시오. 보시오.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대들과 함께 있습니다.(마태오 28:18-20)

마침 기도 : 영광이 하느님께,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 JESUS

## 읽기는데 참고한 책들

- 구약 성서    공동 번역, 대한 성서 공회, 1977  
신약 성서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분도 출판사, 1998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윤 양석 옮김,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2000  
회 헌(Constitutions) 예수회 한국지구, 1999  
이냐시오 로올라 자서전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1997  
예수회 역사    후안 카트레트, 신원식 옮김,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1994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수련    Joseph Tetlow, 류해욱 역,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199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들

- 현실에 대한 사랑으로 빌리 램베르트, 한연희 역, 이냐시오영성연구소, 1998  
내적 인식의 여정 파르마난다 디바카, 심종혁 역, 이냐시오영성연구소, 1994  
영적 자유 존 잉글리시, 이건 역, 카톨릭 출판사, 1996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안소니 드 멜로, 성 바오로, 1986  
관상과 식별 로버트 웨리시, 심종혁 역, 성서와 함께, 1996  
오늘날 이냐시오의 영성 류해욱 편역, 이냐시오영성연구소, 1995  
그리스도교 신앙 입문 칼 라너, 이봉우 역, 분도 출판사, 1994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베티 오도, 김미정 역, 성서와 함께, 1997  
God and You William A. Barry,S.J., Paulist Press, 1987  
Finding God in All Things William A. Berry,S.J., Ave Maria Press, 1991